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책임연구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책임연구원: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23-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23-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8-23-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08-23-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 도구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위원	장근영 연구위원 소경희 교수 (서울대) 김진화 교수 (동의대) 강영배 교수 (日本尚絅学院大)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연구위원	윤혜경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동선 부연구위원	임언 연구위원 이수영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기존의 진단도구로는 청소년들의 생애핵심역량을 세밀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OECD의 DeSeCo 프로젝트는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별 하위차원을 제안한 바 있음
- 이 연구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적 맥락에서 개념화를 시도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도구로서의 지표 개발에 연구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자율적 행동에 관한 국·내외 문헌 분석
-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역량 및 3개 하위요소의 재개념화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하위차원 및 구성요소 설정
-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역량 측정도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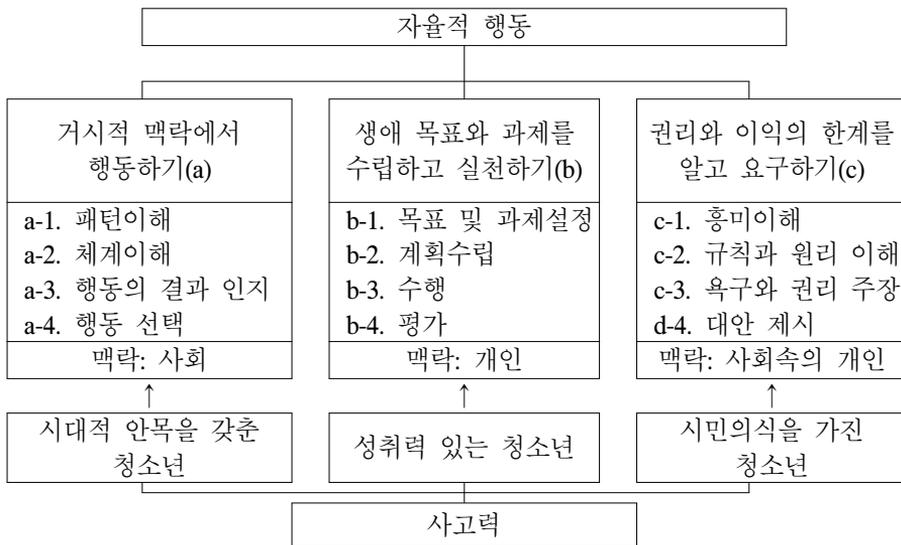
3. 연구방법

- 개념화 및 문항 개발을 위해 자율적 행동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하위요소별 문항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분야 교수 및 연구원, 청소년지도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 측정 및 평가 관련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지표체계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문항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수(50명), 기업 및 기관의 인재개발 담당자(25명), 교사 및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25명) 등 세 개 집단 1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실시
- 개발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 조사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ISA의 조사 대상인 중학교 2학년 총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

4. 연구결과

-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면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화 함
-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의 준거가 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하위요소별 측정영역을 각각 4가지로 도출함



-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중에서 ①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역량’, ②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으로, ③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역량’으로 개념화 함
-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정·오답형 문항(2개 항목, 14점 만점), 행동·태도 문항(10개 문항),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행동·태도 문항(13개 문항), 권리 및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행동·태도 문항(15개 문항)으로 최종 개발함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II. 이론적 배경	11
1. 생애핵심역량의 영역체계	11
1) DeSeCo의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	11
2)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 관련 선행연구	15
2. 자율적 행동의 개념 및 하위요소	22
1) 자율적 행동의 개념	22
2)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24
III.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35
1. 연구 절차 및 방법	35
1) 연구 내용 및 과정	35
2) 연구의 방법	38
2. 자율적 행동 지표체계	41
1) 자율적 행동의 개념 정의	41
2) 자율적 행동의 지표체계	48
3.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의 개발	50
1) 자율적 행동의 측정	50
2) 예비조사 결과	63
IV. 결론 및 제언	93
1. 결론	93
2. 제언	95

참고문헌	97
부 록	103
부록 1.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105
부록 2. 예비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17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	123
부록 4. 전문가 의견(추가 및 수정안)	125
부록 5.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선별한 최종문항)	133

표 목차

<표 II-1> DeSeCo 생애핵심역량의 하위요소	14
<표 II-2> EFF의 16가지 역량 표준(standards)	15
<표 II-4> 청소년의 생활역량 및 생활기술	21
<표 II-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와 행동지표	30
<표 III-1> 자율적 행동 역량 세부항목에 대한 인식	42
<표 III-2>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요소 및 세부항목	44
<표 III-3>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구성요소	45
<표 III-4>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구성요소	46
<표 III-5>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구성요소	47
<표 III-6> 자율적 행동 하위요소와 기존 측정도구의 관계	49
<표 III-7> 자율적 행동 하위요소의 측정지표	50
<표 III-8>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관련 역량(EFF)	54
<표 III-9>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문항 (정오답형)	56
<표 III-10>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문항(행동·태도)	56
<표 III-11> 청소년발달지표의 측정문항	58
<표 III-12> 영국 AQA의 목표 관련 측정도구	58
<표 III-13> 생활역량의 목표설정기술 측정도구	59
<표 III-14>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행동·태도)	60
<표 III-15>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관련 역량 (EFF)	61
<표 III-16>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행동·태도)	62
<표 III-17> 자율적 행동(종속변수)	63
<표 III-18>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	63
<표 III-19> 형제자매 수	64
<표 III-20> 응답자의 부모학력분포 (성별)	65
<표 III-21> 스스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수준	66
<표 III-22>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1차 신뢰도 분석 결과	68

<표 III-23>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척도의 1차 신뢰도분석 결과	69
<표 III-24>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1차 신뢰도분석 결과	70
<표 III-25> 거시적 맥락속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요인 분석결과 ...	72
<표 III-26>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73
<표 III-27>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74
<표 III-28> 거시적 안목척도 2차 신뢰도 분석 결과	76
<표 III-29> 목표 및 과제 수립 척도 2차 신뢰도 분석결과	78
<표 III-30>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 2차 신뢰도 분석결과	77
<표 III-31> 성별에 따른 역량점수의 차이검증결과	79
<표 III-32> 거주지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80
<표 III-33> 부모 학력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80
<표 III-34>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81
<표 III-35> 자율적 역량과 학교만족도	82
<표 III-36> 자율적 행동 역량과 학업성적	83
<표 III-37> 자율적 역량과 학교내 문제행동빈도와의 상관관계	83
<표 III-38> 자율적 역량과 건강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84
<표 III-39> 자율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86
<표 III-40> 목표 및 과제 수립하기 척도의 가설모형 적합도	87
<표 III-41>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척도의 가설모형 적합도	89

그림 목차

[그림 I-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연구추진체계	7
[그림 II-1] 역량 요인의 기반을 이루는 일상적 활동	16
[그림 III-1] 학생·시민·자녀로서 요구되는 역량요인	43
[그림 III-2]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	48
[그림 III-3] PISA(2006) 과학적 소양 평가 구조	51
[그림 III-4] 과학적 사고 및 지식(선택형)의 예	52
[그림 III-5] 과학내용 및 과학에 대한 지식 (정·오답 선택형)의 예	52
[그림 III-6] 상황과 맥락 이해(개인적·사회적·전 세계)의 예 ...	53
[그림 III-7] 흥미와 태도 문항(예)	53
[그림 III-8] 정·오답형 문항 예시	55
[그림 III-9]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기 척도 4요인 간 상관 가정 모형	88
[그림 III-10]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4요인 간 상관 가정 모형	8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존의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및 장기실업률 증가, 복잡한 직업진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¹⁾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역량(competency)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기술을 규명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표준과 국가학습목표를 제시하여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²⁾ 특히, 1997년부터 12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대표적인 선형적 연구로

-
- 1) 사회적 배제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온 개념으로 제도권, 권력, 연대의식, 사회적 자원과 결부되어 그것을 소지하지 못했을 때 주류집단 혹은 특정집단으로부터 주변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결과 주류집단과 비교하여 권리행사나 역량 발휘에 제약을 받는 상태가 된다. 즉, 사회적 배제는 권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합의된 사회에서 그 권리가 정치·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억압되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인위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최선미, 2001: 8). 유럽연합(EU)은 사회적 배제 극복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핵심역량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Trier, 2001).
 - 2)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학력과 직업자격체계를 통합한 국가자격체계를 통해 일정수준의 국가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기반 학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DeSeCo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8대 생애핵심역량을 선포한 바 있다(소경희, 2006; 소경희, 200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주목된다.

OECD는 이 연구를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등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각 범주의 하위차원으로 총 9가지의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OECD 2006).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언어·상징·지식과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의 이러한 노력은 생애핵심역량을 개인과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핵심역량을 측정함으로써 각 국가별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³⁾

국내에서도 국외 연구를 탐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과정이나 자격체계에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정철영 외, 1998; 김미숙 외, 1998; 김진모 외, 2002; 김안나 외, 2003; 나승일 외, 2003; 유현숙 외, 2004; 임언 외, 2004, 소경희, 2007; 윤명희·김진화, 2007).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평생학습 차원과 직업교육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해야 하며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역량으로(유현숙 외, 2007; 한승희 외, 2004), 후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직업기초능력(정철영 외, 2000)의 두 가지 틀로 구분할 수 있다(소경희, 2007). 이와 같은 연구는 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표준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재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질 관리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⁴⁾ 그러나 국내의 역량 관련 연구는 청소년보다는

3) 국가별 역량의 영역 및 국가표준에 관한 사례로는 미국의 SCANS(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미국훈련협회(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영국의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NCC(National Curriculum Council), GNVQs(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EFF(Equipped for the future), 호주의 Karmel위원회, Finn위원회, Mayer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나승일 외, 2007; 정철영 외, 1998).

4) ‘competency’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국내에서 생애능력(유현숙 외, 2004)이나 직업기초능력(정철영 외, 1998; 임언 외, 2005), 핵심역량(소경희, 2007), 생활역량(윤명희·김진

성인이나 취업자 중심으로 역량 요인 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와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윤명희·김진화, 2006; 김기현, 2008). 또한, 역량의 하위요소는 이론적 측면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각 영역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진다. 첫째, 국제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역량 범주를 기반으로 한다. 이 들 세 범주는 상호독립적이며 개념화 및 측정 도구 개발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범위는 자율적 행동으로 제한하며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청소년기 자율적 행동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자 한다.⁵⁾ 특히, 자율적 행동의 경우 DeSeCo에서는 개념과 하위요소에 대한 정의만 언급되었을 뿐 지표와 측정도구는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만 언급된 상황에 있다.

단, 이 과정에서 자율적 행동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EFF(Equipped for the future), DeSeCo의 일환으로 국가별 역량 개념과 개발을 다룬 CCP보고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연구의 목적과 접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매우 흡사한 경우가 많아 종합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정과 내용 전반에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보고 국내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생활역량 및 발달지표에 대한 기존의 진단척도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가 점점 더 다원화, 다문화 사회

화, 2007) 등으로 번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애)핵심역량으로, skill은 기술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인용의 경우 본래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5) 도구 활용의 경우 이미 개발되거나 측정된 지표들에 대한 검토와 기존의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작용 부문과 자율적 행동 부문은 해당 영역의 개념화부터 지표체계 구축, 그리고 핵심지표의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진단도구로는 한국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 여부와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청소년 대상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역량은 개발과 측정이 가능한 개념⁶⁾임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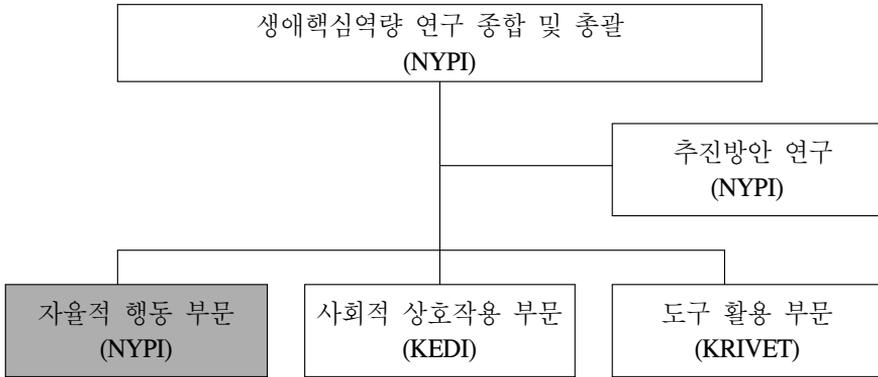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협동연구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참여하였다. 먼저, NYPI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하였다. 이와 함께 역량기반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의 기초연구로서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 지표 가운데 자율적 행동 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료 분석과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였다.

KEDI는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사회적 상호작용 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료 분석 및 측정도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KRIVET 역시 청소년기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개념화 작업에 참여하였고 생애핵심역량 지표 가운데 도구 활용 부문에 대한 국내외 자료 비교분석과 측정도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세 기관에서 각각 담당한 생애핵심역량의 기본 틀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를 토대로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역량 관련 지표들은 큰 틀에서 OECD의 세 가지 범주로 수렴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6) DeSeCo는 역량의 국가비교를 목표로 하며 크게 두 가지 전제를 가진다. 첫째, 핵심역량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과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둘째, 핵심역량은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며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림 1-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 연구과제는 생애핵심역량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과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이다. 2차 년도에는 1차년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조사의 조사를 실시하고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화를 연구과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3차 년도에는 국내 전국 규모조사 자료와 국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분석과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생애기본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의 1차년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1차 년도에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를 토대로 자율적 행동을 재개념화하고 문항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지표체계 제시, 그리고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자율적 행동의 개념화와 문항 개발을 위하여 자율적 행동과 관련한 국

· 내외 선행연구 분석, 둘째, 연구진이 개발한 하위요소별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 개최, 셋째, 청소년기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지표체계 구축과 하위요소별 문항 개발에 활용하고자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마지막으로 개발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등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애핵심역량의 영역체계
2. 자율적 행동의 개념 및 하위요소

II. 이론적 배경

1. 생애핵심역량의 영역체계

1) DeSeCo의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

교육 결과의 질과 경제·사회적으로 전환(returns)된 학습 결과를 측정하고 교육적 성공에 대한 결정요인(key determinants)을 찾는 것은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이에 OECD는 청소년과 성인의 역량과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개념화와 측정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단행하였다. 즉, DeSeCo는 교육적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을 찾아내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개념적인 토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DeSeCo 프로젝트(이하, DeSeCo)는 OECD와 스위스 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이하 SFSO)의 주도로 1997년부터 역량 영역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OECD의 대규모 평가연구인 PISA, ALL과의 협력 하에 간학문적·국제적·과학적 접근을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지표개발과 실증적 결과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이론적 작업과 실증적 작업 사이의 반복적 과정을 장려하여 국제적 맥락에서 역량을 사정(assessment)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DeSeCo, 2001a).

DeSeCo는 궁극적으로 역량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2000년에는 CCP(Country Contribution Process, 이하 CCP)를 창설하였다. CCP는 개별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DeSeCo의 활동 및 관점과 이에 대한 정보를 개별 국가에 제공한 후 CCP에 참여하는 국가들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⁷⁾

7) CCP에 참여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2002년에는 각 국가에서 정의한 역량 개념을 취합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이후 2003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개념과 세 가지 하위요소를 정의하였다.

이에 앞서 DeSeCo에서는 역량의 기본 요건으로 사회와 개인을 위하여 가치로운 산출(outcomes)에 기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중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애핵심역량⁸⁾이란 생활 장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의 모든 차원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이며 개인의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순기능적인 기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즉, 읽기, 쓰기, 그리고 계산하기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skills)을 넘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에 도전함에 있어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생애핵심역량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욕구 충족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성취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참여, 정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미국 등 12개국이다. 각국은 자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역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eSeCo는 역량의 개념 및 선정, 역량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 지표개발 등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하였다(http://www.statistik.admin.ch/stat_ch/ber15/desecco/desecco_country.htm). Trier(2003)는 CCP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급한 역량의 경우(High)와 중간 정도 언급한 경우(Medium), 소수 국가만이 언급한 경우(Low)로 구분하여 핵심역량을 규명하기도 하였으며, 소수 사례에는 건강역량, 육체적 역량, 문화역량 등이 포함된다.

- 8) McClelland(1973)는 현장에서 우수한 직무성과가 예상되고, 실제 수행상황에서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한 우수한 수행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역량은 수행자의 특성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을 분석한 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무 수행자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표준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후 역량 연구가 직업생활에서 일반적인 삶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역량(competency)과 생애(life)의 개념을 접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DeSeCo이다.

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간권리, 환경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지식을 아는 능력보다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고 사회와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Rychen and Salganik, 2003).

DeSeCo는 스위스의 주도 하에 12개 국가에서 참여한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세 가지 핵심역량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인은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고,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DeSeCo의 생애핵심역량은 각국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통합 정리된 결과물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세 가지 하위요소의 선정 배경과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1>이다.

<표 II -1> DeSeCo 생애핵심역량의 하위요소

하위요소	선정 이유	하위역량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하는 기술에 뒤지지 않아야 할 필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도구를 개조시킬 필요 세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수행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론적 사회에서 다양성 (diversity)에 대처할 필요 공감(empathy)의 중요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과 잘 지내기 팀 내에서 협력하고 일하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감수할 필요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맥락 내에서 행동하기 인생계획(life plan)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하기 권리, 흥미, 한계, 요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세 가지 하위요소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구 활용의 경우 OECD 차원에서 지필고사 형태로 독해·문서이해·수리 등의 소양(literacy)을 측정하는 직접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율적 행동 부분은 개념화와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다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 ALL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IEA에서 14세를 대상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비교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DeSeCo는 2010년 성인 역량 조사에서 이 부분을 핵심적 진단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05). 그러나 자율적 행동은 ‘흥미와 학습전략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가 가능하다’(OECD, 2005)는 제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DeSeCo의 연구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례를 생산해 내는 선행적 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 관련 선행연구

핵심역량의 영역체계에 관한 대표적인 분류는 미국의 EFF 프로젝트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EFF는 가족 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생애핵심역량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EFF에서는 <표 II-2>와 같이 16가지 역량 요인에 대해서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평생학습기술(lifelong learning skills) 등 4개의 포괄적인 틀로 구성하고 있다.

<표 II-2> EFF의 16가지 역량 표준(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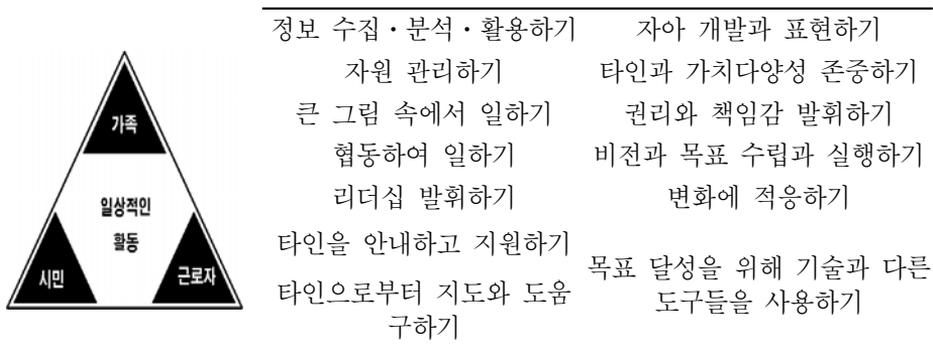
의사소통역량	의사결정역량	상호작용역량	평생학습역량
이해하면서 읽기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학을 사용	타인과 협력하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 가지기
생각을 글로 옮기기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옹호와 영향	반영과 평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계획	갈등해결과 협상	조사를 통한 학습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타인을 안내하고 돌보기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사용하기
비판적으로 주시하기			

주: 16개의 각 하위요소에는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6가지 정도의 행동지표 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http://eff.cls.utk.edu>.

9) EFF는 NIFL(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와 NECP(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간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2000년에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Merrifield, 2000. EFF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분석과 1,109명을 대상으로 114개 초점집단(focus group)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가족·시민·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13가지의 공통 활동(common activities)과 EFF standards라 불리는 16가지의 일반기술(general skills)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근로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DeSeCo와 유사하다 하겠다.

16개의 역량은 각각 독립적 행동(independent action), 접근(access), 주장(voice), 미래에 대한 교량(bridge to the future) 등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 시민,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EFF는 [그림 II-1]과 같이 역량 요인의 기반이 되는 13개의 일상적인 활동(common activities)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활동은 하나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큰 그림 속에서 일하기(work within the big picture), 자원 관리(manage resource), 권리와 책임 행사하기(exercis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등 DeSeCo에서 제시한 생애핵심역량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FF 역시 청소년 보다는 성인의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II-1] 역량 요인의 기반을 이루는 일상적 활동

이 외의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II-3>이다.

<표 11-3>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 국제비교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활동	자율적 행동	기타
DeSeCo (OECD)	Using Tools Interactively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Acting Autonomously	-
EFF ¹⁾ (USA)	Communication Skills/ Lifelong Learning Skills	Interpersonal Skills	Decision-Making Skills	
SCANS ²⁾ (USA)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Skills	-	Resources/ Systems
NBE ³⁾ (Finland)	Communication Skills/The skills needed for Lifelong Learning	-	-	Learning-to-learn skills
FMESC (Austria) ⁴⁾	Three R's(reading, writing, arithmetic)/ IT skills/ Foreign language skills	Social skills	-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cope with technological culture/ Entrepreneurial skills
NZCF ⁵⁾ (New Zealand)	Communication Skills/Numeracy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Social and cooperative skills	Self-management and competitive Skills	physical skills/ work and study skills
CCP Report (Belgium)	Functional competences	Social competences	Positive self-image/ Being able to act and think autonomously	Motivational competencies / Mental ability
CCP Report (Germany)	Instrumental key competences/ Applicable knowledge	Social competencies	Value orientation	Learning competency /Intelligence knowledge

주: 1) Merrifield(2000), 2)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1991), 3) National Board of Education(1999), 4) FM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2001), 5) The New Zealand Curriculum Framework(1993)

뉴질랜드, 캐나다의 퀘벡 주, 호주 빅토리아 주의 교육과정 개혁은 이와 같은 역량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DeSeCo를 기반으로 하여 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 자기관리, 대인관계, 참여와 공헌 등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평생학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역량은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으며 하나의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므로 모든 학습영역에서 근간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캐나다 퀘벡 주는 실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교과에만 국한한 특수 역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과영역과는 별도로 범교육과정적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ies)과 광범위한 학습역량을 따로 범주화하였다(Ministere de l'Éducation, 2001: 12). 전자는 지적역량(정보활용, 문제해결,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 방법론적 역량(효과적인 작업 방법 선택, ICT 활용), 개인적·사회적 역량(정체성 형성, 타인과의 협동), 의사소통 관련 역량을 포함한다. 그리고 후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반영을 목적으로, 건강과 참살이, 개인적·직업적 계획, 환경의식 및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과 공동체적 삶을 하위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새 교육과정 설계는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으로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역량,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역량, 그리고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신체적·개인적·사회적 학습, 학문기반 학습, 간학문적 학습 등 세 개의 스트랜드(strand)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벨기에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많은 문제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다기능적(multi-functional)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하위요소로는 사회적 역량(다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의사소통, 협동), 긍정적 자기 이미지(문제해결, 자기

신뢰, 책임감, 자료습득과 처리능력, 사고력), 학습의욕, 독창성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덴마크의 NCA(National Competence Account)는 DeSeCo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식사회에서 자국민의 역량 성취 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척도를 제시한 바 있다. NCA는 창의성(creativity), 경쟁력(competitiveness), 응집력(cohesiveness)을 역량 개발의 핵심가치(core value)로 정의하고 학습, 변화, 관계, 의미의 네 가지 주요 차원으로 구분된 총 127개의 척도를 제안하였다.

스위스의 청소년·성인조사(The Young Adult Survey, 이하 YAS) 역시 역량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relative autonomy)을 포함하여 자아존중감, 효과적인 자기관리, 자기반성(the ability to be self-reflective), 자기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perceive one's own emotions), 스트레스 관리, 창의성, 학습과 관련한 전략사용, 생태학적 지식과 행동, 건강관리, 사회적 역량, 지속적 학습, 사회적 책임, 정치적 역량, 수행동기 등 15개 역량을 포함한다. YAS는 스위스 내 초·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의 전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신뢰할 만한 척도로 평가되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8세부터 20세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되었다(Trier, 2001: 18).¹⁰⁾

이와 같이 역량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16가지 역량 표준(standards)과 기술(generative skills)을 제시한 EFF 등의 사례는 DeSeCo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역량 측정도구 개발의 선형적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측정도구는 자국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기 개발된 조사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애역량의 영역체계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애핵심역량을 생애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영역체계를 구분한 연구(유현숙 외, 2002; 김안나 외, 2003; 이석재 외, 2003; 유현숙 외, 2004)가 있으며, 생애능력은 기초문해력, 핵심능력, 시민의식, 직업특수능력 등 4가지 영역으로

10) 국가별 역량기반 학습체계 구축사례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애기본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보고서(총괄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분류되고 있다.¹¹⁾ 다음으로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제안한 진미석 외(2007)의 연구에서는 역량요인의 영역체계를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는 의사소통, 자원, 정보, 기술의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higher-order thinking skills),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y)이, 후자는 대인관계 및 협력(interpersonal and cooperative skills), 자기관리(self-management)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명희·김진화(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사람이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조절, 자기성취, 대인관계, 공동체, 창의성, 상황대처 등의 6가지 하위영역과 그에 따른 생활기술을 <표 II-4>와 같이 제시하였다.

11) 기초문해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Read, wRite, aRithmetic)로 모든 학습과 이를 통해 육성되는 여타 주요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핵심능력은 전체 학습단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태도 요인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의 인적 자본을 네트워크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능력을 의미하며 도덕성, 질서의식, 책임감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직업특수능력은 세 가지 요인 이외에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서 요구되는 특수직무능력(job specific competency)으로 특정한 직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요인을 포함하는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표 II-4〉 청소년의 생활역량 및 생활기술

생활역량	정의	생활기술
자기조절 역량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감정과 신체를 조절할 수 있고, 시간 및 소비행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감정조절기술, 신체관리기술, 시간활용기술, 합리적소비기술
자기성취 역량	자발적인 성취동기를 형성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동기형성기술, 목표설정기술, 진로탐색기술
대인관계 역량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표현기술, 경청기술, 관계형성기술, 갈등조절기술
공동체 역량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매너를 갖추고 봉사·참여·협력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매너기술, 봉사참여기술, 협력기술, 리더십기술
창의성 역량	주어진 과제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기획기술, 의사결정기술, 문제해결기술
상황대처 역량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휴대폰중독대처기술, 인터넷중독대처기술, 유해물질대처기술, 폭력대처기술

자료: 윤명희·김진화, 2007: 20.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역량과 생애의 개념이 접목되면서 역량은 직업교육이나 기업교육 차원을 넘어 평생학습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eSeCo, EFF 등의 생애핵심역량 개념과 영역체계는 성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더욱 중요하거나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2. 자율적 행동의 개념 및 하위요소

1) 자율적 행동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자율(autonomy)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혹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eSeCo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과 집단이 그들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고, 그들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목표(goals)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율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환경과 사회적 역동,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고 또한 수행하기를 원하는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이 그들의 생활과 환경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진정한 자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환경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율적 행동은 사회적 역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개발되며, 억압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DeSeCo, 2002: 12). 인간은 단순히 군중(crowd)을 따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정체성을 개발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은 사회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직장, 가족, 사회 등 서로 다른 생활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적 행동은 특히, 전통적인 사회와 같이 각자의 위치가 잘 정의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이라 하겠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맞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DeSeCo에서 자율은 미래지향적이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역동과 자신이 수행하고 또한 수행하고 싶은 역할들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이는 자기이해(self-concept)를 기반으로 개인의 욕구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이 처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율적 행동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Rychen, 2003a: 92).¹²⁾

Ryhen(2003)은 자율적 행동을 협동과 경쟁, 그리고 자원의 공유가 요구되는 관계망 속에서 생활할 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것, 사회 환경과 함께 주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도 개인의 관심과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강조된다.

이 외에 역량 관련 국제비교 연구 가운데 자율적 행동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EFF, 뉴질랜드의 NZCF(The New Zealand Curriculum Framework), CCP보고서 가운데 벨기에와 독일, 덴마크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EFF는 문제해결과 결정, 계획과 같은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에서 특히 자율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http://eff.cls.utk.edu>). NZCF에서는 자기관리 및 경쟁 기술(self-management and competitive skills)이 자율적 행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CCP의 벨기에 보고서에서는 ‘긍정적

12)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동전 하나의 양면과 같다. 자율은 집단 내에서 생존 수단임과 동시에 정당한 협력을 위한 열쇠이다. 세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 자기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복합적인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정체성과 함께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자신을 지향하는 것과, 자신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특히 자율이 요구된다(Perrenoud, 2001; Rychen, 2003a: 92-97).

인 자기 이미지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positive self-image and being able to act and think autonomously)'이, 독일은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과 관련한 대부분의 행동에 자율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¹³⁾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자율적 행동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권리와 욕구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심적인 축이 요구되는데 먼저, 자신의 정체성(가치를 포함하여)을 개발할 것, 둘째,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자율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사(relative autonomy)할 수 있을 것,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행동(playing)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맥락 내에서 책임을 가질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⁴⁾

2)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

Rychen과 Salganik(2002)은 자율적 행동이 시민, 근로자, 가족 구성원, 소비자 등 개인이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자율적이고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① 자신의 자원, 권리, 한계와 욕구를 분명히 하고 평가와 방어하기, ② 자신의 과제(project)를 결정(forming)하고 수행하기(conducting), ③ 학습 전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기, ④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체계, 관계, 그리고 주력분야(force fields)를 분석하기 등이 핵심적인 하위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Perrenoud(2001: 132)¹⁵⁾는 자율적 행동은 사회

13) 그러나 DeSeCo를 제외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하위요소가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14) 따라서, 개인은 자기감(a sense of self)을 개발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감은 시민·근로자·가족 구성원·학습자·소비자, 그리고 이 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다. 자율적 행동과 관련된 핵심 역량들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거나 소외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인 것이다.

15) 스위스 제네바대학 교수로, DeSeCo의 생애핵심역량 가운데 자율적 행동의 상당 부

생활에서 의미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연습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자율을 위해 요구되는 여덟 가지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신의 자원·권리·한계, 그리고 욕구를 정의·평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역량, 둘째, 혼자 혹은 집단 속에서 과제를 결정하고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셋째, 상황과 관계, 그리고 주력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넷째,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집단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공유 할 수 있는 역량, 다섯째, 민주적 형태(democratic-type)의 조직과 집단행동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operate)할 수 있는 역량, 여섯째,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일곱째,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토대 위에서 뭔가를 고심해서 만들 수 있는(elaborate) 역량, 여덟째, 결정된 순서와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역량 등이다.

DeSeCo는 이와 같은 논의를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The ability to act within the "big picture"), 둘째,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The ability to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셋째,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The ability to defend and assert one's right, interests, limits, and needs)가 그것이다.

(1)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¹⁶⁾

분은 그의 연구와 저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율적 행동에 대한 하위요소 상당수는 자율(autonomy) 및 자기 정체성(personal identity)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자기관리(self-management)가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양이 갖춰지는 것 보다는 모양을 갖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선택되기 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6)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OECD에서도 개념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OECD의 논의와 이 연구에 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합의 및 절차(protocol), 그리고 도덕에 부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 문화, 관습,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세상이 작동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규칙과 기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개인이 속한 다양한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는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의 행동이 체계에는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행위들이 유발하는 다양한 결과와 경로를 따라가면서, 공유된 가치관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 혹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내 주변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인식하며,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를 예측하면서 최대한 그 결과를 통제하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매듭지어지도록 끊임없이 나의 계획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¹⁷⁾

이러한 측면에서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세계관, 국가관, 환경과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주요 요소로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¹⁸⁾ OECD(2003a, 2003b)는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의 예로, 자원을 보호하기를 들고 있다. 즉, 자원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유한하며,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여한 전문가 및 연구진의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기존의 척도로는 측정이 불가할 뿐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OECD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도구를 자체 제작하였다.

- 17) 뉴질랜드 교육부(2007)는 사고하기, 자기관리, 대인관계,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 참여와 공헌을 5가지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이 가운데 자기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은 언제 수공해야 하는지, 언제 독립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 도전적인 과제에도 친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행동 정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 18) 이석재 외(2003: 28-9)는 역량의 개념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사고력의 하위군으로 창의력, 분석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문제해결을 제시하였다.

로 거시적 맥락에 입각한 행동의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행동 혹은 하나의 사건이 유발하는 장·단기적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행동의 결과와 장애를 예측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한 후 행동을 선택한다.

셋째, 권리를 훼손·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넷째, 나의 한계와 단점을 알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과업을 요청 받았을 경우 적절한 거절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¹⁹⁾

다섯째,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살피서 계획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으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적의 기회가 올 때 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과 자존감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EFF는 첫째, 큰 그림 속에서 일하기(work with in the big picture)를 역량의 기반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 문화, 풍습, 그리고 공식적·비공식적 규칙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체계 전반의 기대 등을 고려한 행동으로 정의된다.

둘째,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체계 속에서 나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셋째, 체계를 점검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19) DeSeCo는 거절할 때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로, 단순한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지식과 같이 적절한 근거에 입각하여 거절할 것, 자신의 권리가 정당한 것임을 인식시키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력할 여지를 끊임없이 남겨두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둘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갈등해결 및 관계 측면의 내용은 ‘이질적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기’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을 행동준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시민, 근로자로서 큰 그림 속에서 일하기의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가족의 경우 학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시민의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안적인 접근을 조직하는 것, 근로자의 경우 고객의 반응과 자체적인 정보에 기반 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변화를 제안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http://eff.cls.utk.edu>).

(2)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학습 및 인생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Knowles, 1975)으로 정의되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기조정 학습, 자기계획적 학습, 자기교육, 자기교수, 자기학습 등 다양한 개념이 혼용되어 왔으며(양미경, 1997), 자기통제(Mahoney and Thoresen, 1974), 자기관리(Bandura, 1986)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첫째, 학습자는 인지적·동기적 방략의 선택적 사용으로 학습능력을 개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둘째, 자신에게 유리한 학습환경을 선택하고 구성할 뿐만 아니라 창조할 수 있고, 셋째,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학습의 양과 형태를 선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Zimmerman 1989b). 따라서 학습자와 성취에 대한 기존 관점을 크게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탐색·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고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이석재 외, 2003: 17).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 과정적인 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한 시도로 영국 QCA(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의 핵심기술(key

skill)에 대한 정의를 들 수 있다. QCA는 학교 뿐 아니라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을 '자신의 학습과 수행을 향상시키기(improving own learning and performance)'로 표현하였다. 이는 다시 목표설정, 계획, 학습, 평가의 학습 과정적 기술과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의사소통, 건설적인 피드백 수용하기, 학습 기회와 지지에 대한 타협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²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Sink et al., 1991)²¹⁾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가 하위요소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측정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이석재(2003)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소와 행동지표를 <표II-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 대인관계 기술은 상호작용 역량에서 다루게 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QCA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과정을 계획, 실행, 평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목표 및 과제의 설정을 포함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하기로 한다.

21) 인지적 측면에는 영역 특수적인 지식과 전략, 일반적인 학습전략, 학습과 수행에 관한 상위 인지적인 통제가 포함된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영역 특수적인 자기효능감, 통제부위(locus of control), 내적 동기, 자아존중감, 완성경향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 Gugliemino(1977), 김홍원(1995)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요소로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행동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표 II-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와 행동지표

능력요소	하위요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성인
학습계획	욕구형성	비현실적 성취욕구	현실적 성취욕구	현실적 성취욕구
	목표설정	단기적 목표설정(부모·교사가 설정해 주는 목표)	중장기 현실적 목표설정	장기/현실적 목표설정
	자원파악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를 제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적·물적 자원범위 확대	주어지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 창조 및 통제
학습실행	학습전략 선정 능력	학습전략의 사용효과 이해	주어진 학습전략 중 효과적인 학습전략 선택	자신에 적합한 학습전략 개발
	과제집착력	주어진 과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	주어진 과제의 완성 뿐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자발적으로 정한 과제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
학습평가	평가와 후속의 피드백	주관적(절대적)평가, 노력귀인	객관적 평가 노력귀인	객관적 평가, 노력 귀인, 목표수정 및 실행방법 수정

이와 함께 EFF가 제안한 역량 요인 가운데 DeSeCo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역량은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등이다. 이들 역량 요인과 행동준거를 요약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관련 역량(EFF)

역량	행동준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와 목표를 구체화 하는 비전 분명히 하기 • 비전과 양립하는 실천가능한 목표 수립하기 • 비전과 목표를 향한 현실적인 계획 개발하기 •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정보 수집·분석·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원 속에서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집하기 • 정보의 질에 대한 표준과 적절성 수립하기 •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 체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영향력 행사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정보 관리, 문제 해결, 그리고 매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와 기술의 수준을 유지하기 • 목적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결정하기 • 복잡한 도구, 기계, 설비 등을 활용하기

결론적으로, 생애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는 목표 및 과제 설정, 계획수립, 수행, 그리고 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는 인지적 능력(지식과 전략), 정서적 능력(의지, 자아), 행동적 능력(통제, 활용)을 하위요소로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3)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DeSeCo는 자율적 행동의 세 번째 하위요소로 자신의 권리, 이익, 한계, 그리고 욕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흥미와 관심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그 토대에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과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끊임없이 방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사안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이라 하겠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욕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다른 이들과의 갈등이 존재하며, 개인은 수많은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감²²⁾과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

등과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규칙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동의 핵심을 차지한다.²³⁾

Perrenoud(2001)는 개인이 자원(resource)에 대한 이해와 권한을 가지고 삶의 전반에서 스스로 많은 통제력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역량은 가족 구성원, 시민, 소비자, 노동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권리와 욕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상대방과의 의견 차를 재점검하여 화해를 도모하고 실패한 전략을 분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칙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융통성 있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례 및 사례를 찾아내어 기존 규칙을 다듬는 작업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의 사용을 통해 이견을 상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
- 22) EFF는 가족구성원, 시민, 근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요구되는 책임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보편적인 활동으로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 가족 구성원은 지도하고 돌보기, 복합적인 욕구와 책임감의 균형 맞추기, 세대 간의 의사소통 장려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 23) 이 역량은 같은 일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과 같은 자기지향의 권리(self-oriented rights)와 충분한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 뿐 아니라 조직과 정치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은 사적·공적으로 이 역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가족, 친구, 고용주, 교사, 이웃, 변호사, 의사, 회사,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부와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이 역량을 사용해야 한다.

Ⅲ.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1. 연구 절차 및 방법
2. 자율적 행동 지표체계
3.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의 개발

Ⅲ.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1.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과정

이 연구는 「생애기본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의 1차년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차 년도에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를 토대로 자율적 행동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도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행동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이 연구는 생애핵심역량에 관한 연구 가운데 자율적 행동과 관련한 국내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세 가지 역량 범주의 개념화와 측정도구 개발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도구 활용의 경우 OECD 차원에서 독해력(prose literacy), 문서이해력(document literacy), 수리력(numeracy) 등 구체적인 지표에 대하여 지필고사 형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ISA²⁴⁾와 성인 대상 ALL 등의 국제비교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반면, 가치 지향적이거나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부문과 자율적 행동부문은 국제적 논의에서 아직 개념화 단계이거나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자율적 행동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되 EFF 등에서 제시하는 역량 가운데 자율적 행동과 관련한 요소를 검토하고 척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24) 기존의 국제비교연구인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비교하여 학생의 지식수준보다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 능력 평가의 의미가 강하며, 각국의 교육효과와 미래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자율적 행동 개념화 및 지표체계 설정

이 연구에서 자율적 행동의 개념 및 하위요소는 DeSeCo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한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자율적 행동은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하위요소로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둘째,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셋째, 권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로 구분하고 있다. 단, 이 연구에서는 국제비교 가능성과 측정내용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행동을 개념화하였다. 이와 함께 세 가지 하위요소별로 문항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개발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의 개념과 지표체계를 기초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세 가지 하위요소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하위요소의 핵심 개념과 구인(construct)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대표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항개발의 구조를 결정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하위요소 간에 중복성과 문제 유형을 검토하였다. 4단계에서는 개발된 문항주제를 측정도구의 규모, 지필검사 가능성 여부, 문항 및 내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개발된 문항을 선택지형 또는 리커트형의 지문으로 구성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문항으로 배열하였으며 집단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하위요소별 측정문항의 개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위요소의 핵심 개념 정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자신의 관심과 권리를 이해하고 행동하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측정영역을 각각 4가지씩 정리하였다.

② 하위요소별 측정지표 도출

각 하위요소별 측정영역의 의미와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지표체계를 마련하여 선행연구와 기존의 진단도구를 참조할 부분과 연구진의 자체 개발이 요구되는 항목을 설정하고, 측정지표에 따른 문제유형을 결정하였다.

③ 측정영역에 대한 문항 개발

측정영역의 개념을 정의하는 서술형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표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오답형 문항은 100% 연구진이 자체개발하였으며, 행동빈도와 태도 관련 문항은 연구진이 개발한 후 선행연구 가운데 유사한 문항을 예로 참고하였다. 그러나 광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측정영역별 문항이 상호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연구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문항은 측정영역의 의미를 포함하되, 측정영역이 아닌 하위요소 차원에서 개발하였다.

④ 측정문항에 대한 검토

연구진은 수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각 하위요소별로 50개씩 총 150개의 측정문항을 개발 하였다. 이후 각 문항이 하위요소를 반영하는 정도와 대표성 여부를 각자 표시하고, 전체 연구진이 동의한 문항만을 최종 선별하였다.

⑤ 안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검토

최종 선정된 문항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 청소년 지도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문항 검토를 의뢰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3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고 보통 이하의 응답에는 추가 안을 제시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용어와 표현을 전체 연구진이 동의할 때 까지 수정·보완하였다.

⑥ 최종문항 선정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에 대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부록 참조).

2) 연구의 방법

(1) 자율적 행동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율적 행동의 개념화와 문항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과 동일한 수준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의 연령보다는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하위요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DeSeCo 및 CCP에 참여한 주요국가의 보고서와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EFF, PISA 및 ALL 등 국제비교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발달지표와 기 개발된 진단도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

연구진이 마련한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하위요소별 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청소년지도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 그리고 측정 및 평가 관련 연구자를 포함하여 개별 자문을 받고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먼저 연구진은 측정도구의 개발에 앞서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세 가지 하위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DeSeCo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협의회를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 개인별로 자료를 검토한 후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생애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권리 및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등 세

가지 하위요소의 핵심 개념과 구인(construct)을 도출하였다.

2단계,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개념과 대표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항개발의 구조를 결정하였다. 즉,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의 종류를 지식·이해·태도·행동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하위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오답 선택, 행동빈도 측정, 태도 측정 등 문항 유형을 확정하였다.

3단계, 연구진은 세 가지 하위요소별로 50개의 문항 총 150개를 도출하고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세 가지 하위요소의 측정문항에 중복성이 없는지, 또한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도구 활용 및 사회적 상호작용)간에 중복은 없는지와 문항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4단계,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크기가 제한적이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의 자문 과정을 거쳐 영역별로 20개 정도의 문항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5단계, 정·오답 선택 지문을 제외한 행동빈도와 태도 측정 문항은 Likert 척도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드물게 ~ 5점: 매우 자주)를 사용하고 역문항을 포함하였다.

(3)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지표체계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문항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8년 5월 19일부터 23일과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 이메일을 이용하여 교수(50명), 기업 및 기관의 인재개발 담당자(25명), 교사 및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25명) 등 세 개 집단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시급히 갖추어야 할 역량 요인, 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역량 요인,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생, 시민,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요인 등 크게 세 가지이다.

(4)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① 조사대상

이 조사는 연구진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의 조사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소재 중학교로 조사지역을 제한하였다. 또한, 국제 학업성취도조사(PISA)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총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② 표본추출

모집단은 2008년 기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며 표집틀로는 「교육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먼저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의 중학교 수의 비율로 층화하였다. 「교육통계연보(2008)」에서 서울지역은 369개교, 경기지역은 545개교, 인천지역은 123개교로 지역별 분포는 각각 35.6%, 52.6%, 11.9%로 나타났다. 지역별 중학교 2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로 할당된 학교수는 총 20개 학교로 서울지역에서 7개교, 경기지역에서 11개교, 인천지역에서 2개교를 표본추출하였다. 학교 추출은 표집틀 중 최소특성(지자체 구분)에 따라 정렬한 후 n번째 학교를 계통 추출하였으며 인천 지역의 경우 최소특성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본추출한 중학교 2학년 학급수에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③ 조사절차

조사 시기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이전에 이 조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 별도로 담임교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정규수업시간 중에 담임 1인과 조사자 1인이 입회하여 학급 단위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간은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50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들이 전체 지문에 대하여 빠짐없이 응답하도록 하고 의문점이 있을 경우 질문하도록 하였다. 조사자는 학생의 질문이 있을 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 측정도구의 수정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④ 조사도구의 구성

측정도구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생애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욕구 및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등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역량의 측정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조사에서는 자율적 행동 외에 DeSeCo의 생애핵심역량으로 제시된 도구 활용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하나의 조사도구 형태로 제시되었다.

조사지의 구성은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에 이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10문항),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6개), 사회적 상호작용 측정 도구, 도구 활용 측정 도구, 마지막으로 자율적 행동 측정 도구 순으로 배열하였다. 일반적 사항은 성별, 거주 지역, 형제·자매관계, 부모 학력, 생활수준, 부모자녀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시간 및 아침식사 등 건강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PISA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학교생활은 학교생활만족, 휴학·지각·무단결석·징계 경험, 성적 수준, 장래 직업 설정 여부, 희망하는 교육 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예비조사 설문지의 타당성 및 난이도 검토를 위해서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수를 실시하였다.

2. 자율적 행동 지표체계

1) 자율적 행동의 개념 정의

자율적 행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세부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적 행동 역량과 관련된 세부항목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기정

체성, 자율성, 계획수립의 세 가지로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정체성과 자율성의 경우 가장 중요하면서도 부족한 역량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동조절 능력은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높지 않았으나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²⁵⁾

DeSeCo와 EFF는 기존의 직업생활에서 국한되었던 역량에 관한 논의를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델파이 조사에서도 자율적 행동 관련 세부항목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역할, 직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생애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의견을 함께 파악하였다.

<표 III-1> 자율적 행동 역량 세부항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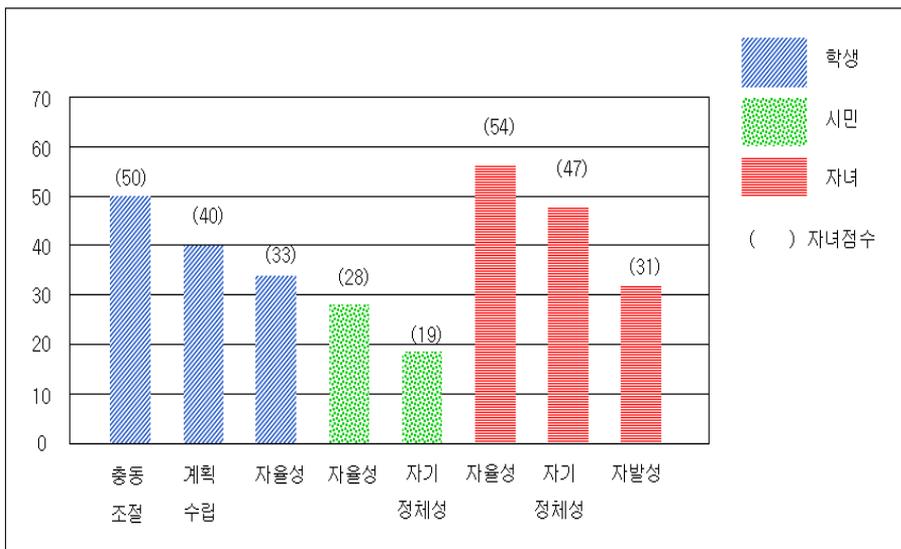
하위요소 목록	중요도		필요도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 자기정체성	122 (45)	158 (59)	54 (24)	85 (39)
2. 자기모니터링 능력	18 (10)	10 (6)	26 (15)	13 (9)
3. 충동조절 능력	24 (14)	13 (8)	60 (28)	72 (42)
4. 계획수립 능력	57 (30)	54 (39)	46 (23)	36 (23)
5. 계획실행 능력	29 (16)	11 (6)	33 (20)	13 (9)
6. 권리인지 능력	14 (8)	8 (5)	18 (10)	3 (1)
7. 의무이행 능력	12 (9)	1 (1)	23 (14)	10 (4)
8. 자율성	86 (46)	114 (56)	88 (40)	127 (54)
9. 자발성	31 (19)	15 (12)	41 (20)	37 (17)
10. 기타 능력	3 (1)	9 (5)	5 (2)	0 (0)

주: 원자료의 가중치 점수만 추출하여 재정리함. 가중치 점수는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순위 밖(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값임.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상위 3위 안에 해당하는 항목임.

자료: 김기현, 2008: 255~57.

25) 전문가 집단별로 응답률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기관(93.3%)과 교사/지도사 집단(86.7%)은 자기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교수집단은 자기정체성(52.8%)과 함께 자율성(25.0%)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필요성의 경우 교사/지도사의 경우 충동조절 능력(20.0%), 기업/기관의 경우 의무이행 능력(13.3%), 교수집단은 자발성(13.9%)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으로는 충동조절 능력이 가중치 점수에서 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계획수립 능력(40점), 자율성(33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는 자율성(28점), 자기정체성(19점) 등이,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수행 시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자율성(54점), 자기정체성(47점), 자발성(31점) 등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학업과 입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역할과 자녀로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요인이 자율적 행동임이 규명되었으며, 중요한 요소와 부족한 요소가 중복 응답된 경우가 많았다(김기현, 2008: 48-51). 이는 학교 교육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밖 청소년 활동역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학습체계가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III-1] 학생·시민·자녀로서 요구되는 역량요인¹⁾

따라서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요소는 연구진 회의를 거쳐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의 세부항목 및 측정을 위한 문항에 포함하였다. 즉, 충

동조절과 자기정체성은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로, 계획수립은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로, 그리고 자율성과 자발성은 세 가지 하위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요소로 포함하였다.

<표 III-2>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요소 및 세부항목

하위요소	세부항목	개념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자기정체성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 정체감을 가지고 상황과 맥락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자기모니터링	상황맥락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능력
	충동조절	문제해결이나 상황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계획수립	학교생활과 학습, 진로와 직업 선택 등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계획실행	자신이 수립한 목표와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정도와 능력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권리인지	현재 나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주어진 권리, 이익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
	의무이행	현재 나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주어진 의무와 행동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 정도와 능력
공통요소	자율성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
	자발성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부의 힘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
	기타	위에 언급된 것을 제외한 자율적 행동과 관련된 항목

지금까지의 논의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념화는 하위역량별로 먼저 행동준거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역량을 정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이후 행동준거를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①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DeSeCo의 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보고서를 살펴보면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세계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환경과 사회의 역동성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주변 체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나의 행동이 장·단기적으로 유발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개인의 입장에 볼 때 당장에는 손해나 불편이 있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득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 공정무역(fair trade)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부당한 요구에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고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인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 올 때 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기’로 개념화 하였다.

<표 III-3>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구성요소

하위요소	행동준거	세부항목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와 일련의 결과를 이해한다 · 나의 행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결과를 유발할지 알고 있다 	패턴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 ·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체계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행동의 결과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정당한 대가라면 지불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다 	행동 선택

②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와 과제를 설정한 후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는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활용 가능한 자원의 위치와 양을 사정(assessment)하기,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목표를 재조정하기,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과거의 학습을 통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전 과정을 점검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석재 외(2003)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DeSeCo는 성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습보다는 생애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이 성인기의 그것과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될 뿐 아니라 성장·발전하는 개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진다. 따라서 목표와 과제는 학습과 인생 전반을 포괄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표 III-4>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구성요소

하위요소	행동준거	세부항목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가 있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목표 및 과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계획한다 계획 수정이 필요한 때를 알고 계획을 변경한다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다 난관이 있더라도 하던 일을 마무리한다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한 일을 스스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차후에 반영한다 	평가

③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현재 나의 위치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면서 나의 권리와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국민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대적으로 옳은 사회 규칙과 질서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면 아무도 권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은 나의 관심과 흥미 뿐 아니라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회적 규범과 법,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감안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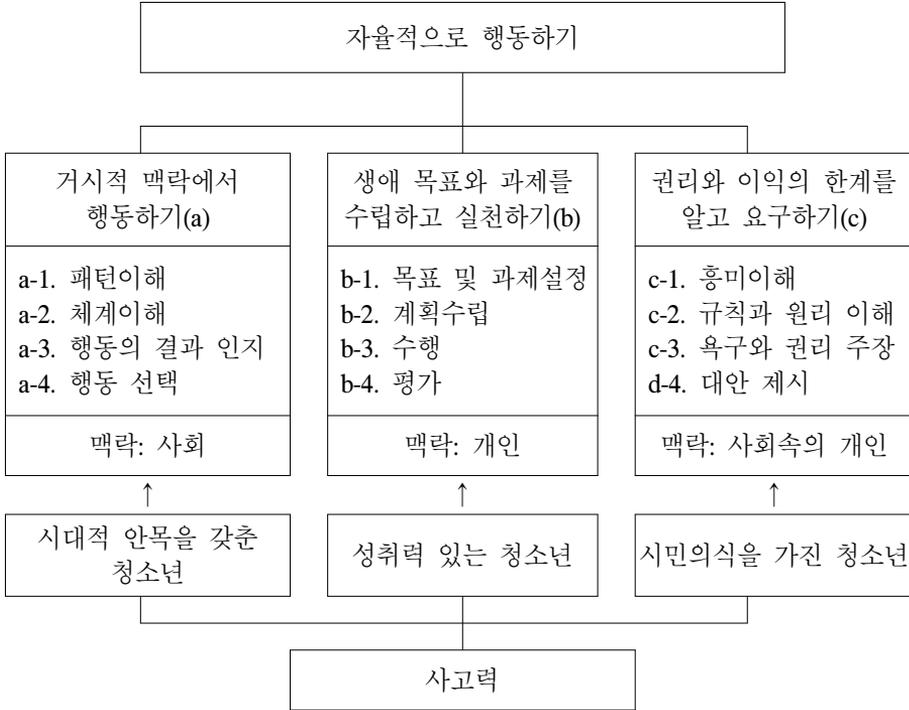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자신(청소년)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표 III-5>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구성요소

하위요소	행동준거	세부항목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안다 • 관심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안다 	흥미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규칙 뿐 아니라 사회의 이치를 안다 •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안다 	규칙과 원리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를 주장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안다 • 욕구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안다 	욕구와 권리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모두 만족할 때까지 많은 대안이 있다 • 해결책을 찾을 때 까지 많은 방법을 취해본다 	대안 제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와 세부요소를 [그림 III-2]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각 하위요소가 적용 가능한 맥락

(개인 혹은 사회)을 도출하고, 이들 역량이 추구하는 청소년의 상(象)을 예로 제시해 보았다.



[그림 III-2]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

2) 자율적 행동의 지표체계

자율적 행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측정도구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표 III-6>과 같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맥락이 동일한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를 제외하면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권리·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기존의 척도로는 역량의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6> 자율적 행동 하위요소와 기존 측정도구의 관계

하위요소	구분	DeSeCo ¹⁾	EFF ²⁾	NYPI	AQA	윤명희 외	KEDI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하위요소 및 주요 개념	기본역량					
	체계이해							
	행동의 결과 인지							
	행동의 선택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목표지 향성	경력 개발	목표 설정	자기 주도적 학습 ³⁾
	계획수립							
	수행							
	평가				경력 개발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흥미 이해				상호작용 역량			
	규칙과 원리 이해							
	욕구·권리							
	대안 제시				의사결정 역량			

주: 1) 측정도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론적 논의를 참고함.

2) 모든 역량의 기반이 되는 일반적 행동 13가지 가운데 큰 그림 속에서 행동하기, 자원 관리, 변화에 적응하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정보수집·분석·활용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자기개발과 표현하기, 권리와 책임감 행사하기 등을 활용함.

3) PISA의 범교과역량 측정도구를 일부 참고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행동 관련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의 지표체계를 제시한 것이 <표 III-7>이다. 측정지표는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한 측정문항의 개발을 위한 준거이다.

〈표 III-7〉 자율적 행동 하위요소의 측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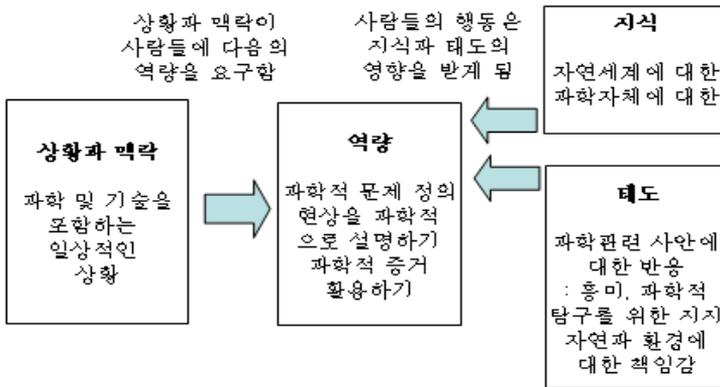
하위요소	측정영역	개념	측정지표		
			핵심	보조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사회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이해	DeSeCo EFF		
	체계이해	관습·도덕·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 태도			
	행동의 결과 인지	행동의 결과 예측			
	행동의 선택	행동의 결과를 통제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목표 설정과 계획의 수정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수립	정보 수집 및 구체적 계획 수립			
	수행	과업 완수에 대한 의지와 신중한 행동			
	평가	결과 검토와 의견 수립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흥미 이해	관심·흥미에 대한 이해			직업 흥미검사
	규칙과 원리 이해	법·규칙과 상황 원리에 대한 이해			
	욕구·권리	욕구·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			
	대안 제시	주장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해, 태도			

3.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의 개발

1) 자율적 행동의 측정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한 측정문항 개발을 위하여 먼저 연구진은 측정영역의 개념을 정의하는 서술형 문항을 제작하고 영역의 구성요인(construct)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PISA(2006)의 과학적 소양에서 활용된 문항개발의 틀(framework)을 참고하였다. 먼저 아래 [그림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context)은 과학과 기술을 포함하는 일상적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되며, 지식(knowledge)은 자연세계 및 과학 자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과학적 사고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태도는 과학에 대한 흥미 및

과학적 탐구를 위한 지지, 그리고 자연 자원과 환경에 대한 반응적 태도와 동기와 같은 책임감 여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역량은 과학적 사안(문제)을 정의하고,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증거에 기반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출처: OECD(2007). A Framework for PISA 2006. Assessing scientific, reading and mathematical literacy.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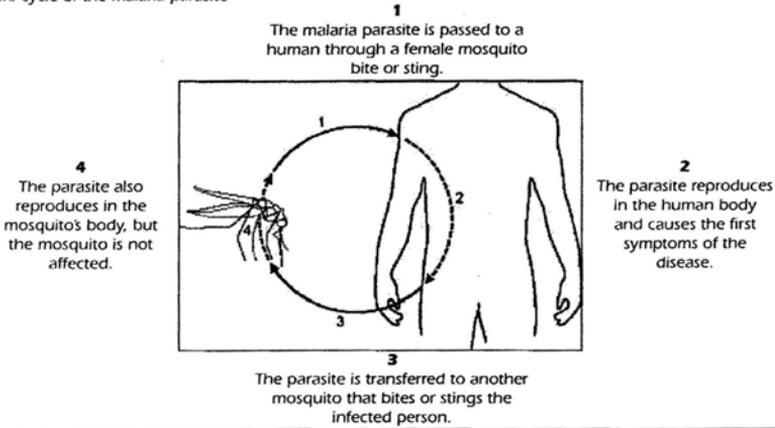
[그림 III-3] PISA(2006) 과학적 소양 평가 구조

PISA 2006에서 과학적 소양 문항은 총 37개 과제의 14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제 유형은 지식 및 흥미와 태도에 대하여 선택형, 복합선택형, 폐쇄형 서술형, 개방형 서술형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자율적 행동의 측정은 서술형을 제외한 선택형으로 하되, 하위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지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오답 선택형과 행동 및 태도 측정형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두 하위요소는 행동의 여부와 빈도, 그리고 흥미와 태도 측정 유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PISA 2006의 과학적 소양 관련 문항의 구체적인 예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Science Example 2: MALARIA

Malaria is the cause of more than one million deaths every year. The fight against malaria is currently in crisis. Mosquitoes pass the malaria parasite from person to person. The malaria-carrying mosquito has become resistant to many pesticides. Also, medicines against the malaria parasite are getting less and less effective.

Life cycle of the malaria parasite



Question 1: MALARIA

Three methods of preventing the spread of malaria are given below.

Which of the stages (1, 2, 3 and 4) in the life cycle of a malaria parasite are *directly* affected by each method? Circle the relevant stage(s) for each method (more than one stage may be affected by a single method).

Method of preventing the spread of malaria	Stages in the life cycle of the parasite that are affected			
Sleeping underneath a mosquito net.	1	2	3	4
Taking medicines against malaria.	1	2	3	4
Using pesticides against mosquitoes.	1	2	3	4

[그림 III-4] 과학적 사고 및 지식(선택형)의 예

Question 3.2

For drinks during the day, Peter has a cup of hot coffee, at a temperature of about 90 °C, and a cup of cold mineral water, with a temperature of about 5 °C. The cups are of identical type and size and the volume of each drink is the same. Peter leaves the cups sitting in a room where the temperature is about 20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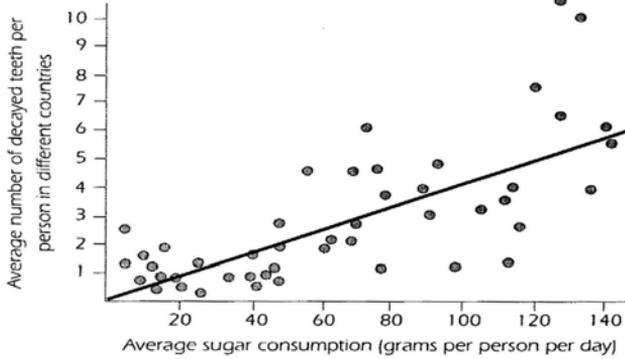
What are the temperatures of the *coffee* and the *mineral water* likely to be after 10 minutes?

- A. 70 °C and 10 °C
- B. 90 °C and 5 °C
- C. 70 °C and 25 °C
- D. 20 °C and 20 °C

[그림 III-5] 과학내용 및 과학에 대한 지식(정·오답 선택형)의 예

Question 2.2

The following graph shows the consumption of sugar and the amount of caries in different countries.



Each country is represented by a dot in the graph.

Which on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supported by the data given in the graph?

- A. In some countries, people brush their teeth more frequently than in other countries.
- B. The more sugar people eat, the more likely they are to get caries.
- C. In recent years, the rate of caries has increased in many countries.
- D. In recent years, the consumption of sugar has increased in many countries.

[그림 III-6] 상황과 맥락 이해(개인적·사회적·전 세계)의 예

Question 3.3

How much interest do you have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High Interest	Medium Interest	Low Interest	No Interest
a) Understanding how the shape of the cup influences the rate at which coffee cool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Learning about the different arrangements of atoms in wood, water and stee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 Knowing why different solids conduct heat at different rat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림 III-7] 흥미와 태도 문항(예)

(1)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DeSeCo와 EFF의 논의 가운데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와 관련된 요소를 문항 제작에 반영하였으며 EFF에서 제시한 역량 가운데 거시적 맥락과 관련한 요소를 정리한 것이 <표 III-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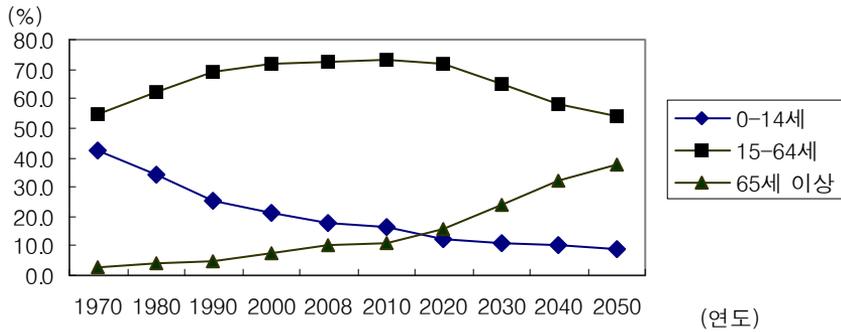
<표 III-8>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관련 역량(EFF)

역량	행동준거
큰 그림 속에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나와 체계가 어떻게 관련되며 체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타인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 체계를 모니터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 체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영향력 행사하기
자원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정의하기 •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 가족·직장·지역사회와 자신을 위해 자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변화에 적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 혹은 예상되는 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목표와 계획 조정하기 • 직장과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적 경향을 평가하고 따르기 • 최근에 대두된 욕구와 새로운 상황에 맞는 기술과 지식 알기 •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주: 13가지 일상적 활동 가운데 DeSeCo의 정의 관련 역량만을 도출하였음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와, 자신의 행동이 장·단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를 예측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와 ‘음반의 불법 다운로드’문제를 청소년과 관련되는 주요 문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III-8]과 같이 정·오답 선택형 문항을 자체개발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위에 제시된 그림과 관련하여 아래 각 항목의 예상되는 결과는? (정·오답형)

- 노인인구의 변화 ■ 출산율의 변화 ■ 평균수명의 변화
- 학생수의 변화 ■ 결혼 연령의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위의 그림과 같은 추세가 계속 될 때 예상되는 일련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정·오답형)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나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___ 1)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___ 2) 학생들이 줄어든다

___ 3)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___ 4)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그림 III-8] 정·오답형 문항 예시26)

이와 함께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는 정·오답형과 행동 및 태도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며 앞에서 제시한 논의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진이 자체개발하였다.

26) 본 문항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 즉, 문해력 정도를 측정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대한 그림은 연구진의 만장일치로 최종 단계에서 삭제하였다.

<표 III-9>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문항 (정오답형)

세부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 결과 인지 행동선택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인구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위 6문항)	자체개발	II-1-1부터 II-1-6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일련의 결과입니다. 빈 칸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표 하십시오.	자체개발	II-2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 방법의 이득과 손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단점을 의미하는 ①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표 하십시오.	자체개발	II-3-1
	위에 제시된 불법다운로드가 계속될 때 예상되는 일련의 결과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표 하십시오.	자체개발	II-3-2
	A라는 사람이 가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A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표 하십시오.	자체개발	II-3-3

<표 III-10>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문항(행동·태도)

하위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 결과 인지 행동선택	나는 법과 규범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자체개발	III-5-1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자체개발	III-5-2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자체개발	III-5-3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자체개발	III-5-4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자체개발	III-5-5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1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2

〈표 III-10〉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문항(행동·태도) (계속)

하위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 결과 인지 행동선택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3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4
	나는 나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5
	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살펴본다	자체개발	III-4-6
	나는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정당한 대가라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체개발	III-4-7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살펴본다	자체개발	III-4-8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r)	자체개발	III-4-9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10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자체개발	III-4-11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자체개발	III-4-12
	나는 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한다	자체개발	III-4-13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자체개발	III-4-14

주: 'r'은 역문항임

(2)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의 측정문항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도구들 중에서 선별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문항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의 첫 번째 하위요소인 ‘목표 및 과제 설정’은 청소년 발달지표의 측정문항 가운데 목표지향성 문항과 영국 AQA(Assessment Qualifications Alliance)²⁷⁾에

27) AQA는 우리나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유사한 기관으로 영국에서 GCSE, GCE, GNUQ, VCE 등 각종 입학(자격)시험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핵심기술과 관련된 평가도구 개발과 자격시험 실시, 연수교육 등을 주관하고 있다(<http://www.aqa.org.uk>).

서 제시한 핵심기술(Key Skills) 중에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계획하기(set target and plan action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기(follow plan to meet own targets)에서 추출한 경력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항(evidence)를 참조하였다(AQA, 2000).

〈표 III-11〉 청소년발달지표의 측정문항

정의적 특성	자아 개념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 한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
	행복감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목표 지향성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III-12〉 영국 AQA의 목표 관련 측정도구

경력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

- 개인의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달성하기를 원한다.
- 개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활용한다.
- 개인의 목표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다.
- 적절한 사람과 함께 자신의 목표에 대해 점검한다.
- 달성한 목표와 그렇지 않은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개인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확인한다.
- 조언 없이 독창적으로 개인의 목표를 설계한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 계획을 수정한다.
- 적극적으로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추구하고 활용한다.
- 목표 달성후, 그 효과성을 판단한다.

〈표 III-13〉 생활역량의 목표설정기술 측정도구

목표 설정 기술	1. 나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2. 나는 장래를 위한 나만의 계획이 있다
	3. 나는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있다
	4. 나는 학기 초에 목표를 세운다
	5. 나는 매주 해야 할 계획을 세운다
	6. 나는 특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7. 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8.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9. 나는 목표를 세울 때 친구, 어른과 의논한다
	10. 나는 목표를 세울 때 다양한 자료를 검색한다
	11.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획한다
	12.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하위요소인 ‘계획수립’은 AQA와 함께 윤명희·김진화(2007)의 생활역량 측정도구 가운데 자기성취역량에서 목표설정기술과 관련된 측정도구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측정도구들을 참조하였다. 세 번째 하위요소인 ‘수행’부분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근간으로 하되, PISA 조사에서 2000년에 수행한 범교과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ies)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일부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부분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측정 문항과 AQA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표 III-14〉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행동·태도)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목표 및 과제 설정	나는 구체적인 생활목표를 가지고 있다	NYPI	III-8-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NYPI	III-8-2
	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AQA	III-8-3
	나는 목표를 수립하기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AQA	III-8-4
	나는 목표를 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AQA	III-8-5
계획 수립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윤명희 외	III-7-1
	나는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 혹은 시간을 미리 결정한다	KEDI	III-7-2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윤명희 외	III-7-3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계획을 바꾼다	AQA	III-7-4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AQA	III-7-5
수행	나는 해야 할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KEDI	III-7-6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KEDI	III-7-7
	나는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r)	KEDI	III-7-8
	나는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	KEDI	III-7-9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PISA	III-7-10
평가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KEDI	III-7-11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원하던 목표수준과 비교한다	KEDI	III-7-12
	나는 목표달성 후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한다	AQA	III-7-13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AQA	III-7-14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고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확인한다	AQA	III-7-15

주: r은 역문항임

(3)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행동·태도)

DeSeCo의 논의와 EFF의 역량 가운데 관련 요소를 문항 제작에 전반적으로

로 반영하였다.

<표 III-15>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관련 역량(EFF)

역량	행동준거
자기 개발과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가치·신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표현이 가능한지를 결정함에 있어 문화적 전통과 개인력(personal history) 인식하기 · 완전한 기준(표준)을 유지하기 · 행동 방법을 선택할 때 상황의 제약 뿐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기 ·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흥미와 재능을 표출하기
권리와 책임감 행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시민·근로자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발휘하기 · 법과 규범을 모니터하고 준수하기 ·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확신하기 · 보편적 선의를 위한 변화 및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가지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정보 관리, 문제 해결, 그리고 매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와 기술의 수준을 유지하기 · 목적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결정하기 · 복잡한 도구, 기계, 설비 등을 활용하기

흥미에 대한 이해 부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00)의 청소년 직업흥미 검사와 노동부(2000)의 중·고·대학생용 청소년 직업흥미 검사를, 대안제시 부문은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의 문항 일부를 참고하였다. 이 외의 문항은 DeSeCo, EFF 등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진이 자체 제작하였다.²⁸⁾

28) 규칙과 원리 이해는 자기통제기술척도와 MMPI(다면적인성검사)척도 중 반사회성 부분을, 욕구와 권리부문은 주장성 척도 등을, 대안 부분은 문제해결 척도, 주장성 척도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들 척도는 역량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의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표 III-16〉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행동·태도)

하위 요소	문항내용	출처	문항
흥미 이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한국고용정보원	III-8-6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한국고용정보원	III-8-7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한국고용정보원	III-8-8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있다	DeSeCo	III-8-9
	나는 나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DeSeCo	III-8-10
규칙·원리 이해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법, 규칙, 규범에 대하여 알고 있다	DeSeCo	III-8-11
	나는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때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DeSeCo	III-8-12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맥락을 먼저 이해한다	DeSeCo	III-8-13
	나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심사숙고한 후 행동한다	DeSeCo	III-8-14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DeSeCo, EFF	III-8-15
욕구·권리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DeSeCo	III-8-16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DeSeCo	III-8-17
	나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DeSeCo	III-8-18
	나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주장한다	DeSeCo	III-8-19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알고 있다	DeSeCo, EFF	III-8-20
대안	나는 해결책을 찾을 때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을 생각한다	D'Zurilla et al.	III-7-16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DeSeCo	III-7-17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찾아본다	DeSeCo	III-7-18
	나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DeSeCo, EFF	III-7-19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DeSeCo, EFF	III-7-20

마지막으로,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에 대한 결과(outcomes)에 해당하는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척도의 분석 과정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III-17〉 자율적 행동(종속변수)

문항내용	출처	문항
친구들로부터 생각 좀 하며 살라는 소리를 듣는다(r)	자체개발	45-1
친구들로부터 재치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자체개발	45-2
선생님으로부터 계획성이 없다는 야단을 맞는다(r)	자체개발	45-3
선생님으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자체개발	45-4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자체개발	45-5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r)	자체개발	46-6

주: 'r'은 역문항임

2) 예비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예비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60.8%(429명), 여학생은 39.2%(276명)로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전체의 54.04%(38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거주자 33.9%(239명), 인천 거주자 12.05%(85명) 순이었다.

〈표 III-18〉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

(단위: 명, %)

		성별		계
		남학생	여학생	
거주지	서울	165	74	239
	인천	43	42	85
	경기도	221	160	381
계		429(60.8)	276(39.2)	705(100.0)

형제 수는 평균 2.01명, 남자형제는 평균 1.08명, 여자형제(자매)는 0.93 명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형제숫자는 1.95 여학생의 경우에는 2.10명으로 성별에 따른 형제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t=2.736, p<.01$).

<표 III-19> 형제자매 수

(단위 : 명. %)

거주지	형제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Total
서울	남자형제	인원	49	116	68	5	1	239
		비율	20.5	48.5	28.5	2.1	0.4	100
	여자형제	인원	86	104	44	5	-	239
		비율	36.0	43.5	18.4	2.1		100
인천	남자형제	인원	21	46	17	1	-	85
		비율	24.7	54.1	20.0	1.2		100
	여자형제	인원	28	39	16	1	1	85
		비율	32.9	45.9	18.8	1.2	1.2	100
경기도	남자형제	인원	77	206	91	7	-	381
		비율	20.2	54.1	23.9	1.8		100
	여자형제	인원	112	183	71	14	1	381
		비율	29.4	48.0	18.6	3.7	0.3	100
전체	남자형제	인원	147	368	176	13	1	705
		비율	20.9	52.2	25.0	1.8	0.1	100
	여자형제	인원	226	326	131	20	2	705
		비율	32.1	46.2	18.6	2.8	0.3	100

부모의 학력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은 고교졸업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졸업이 26.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28.4%와 28.9%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부모의 학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알고 있으나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20> 응답자의 부모학력분포 (성별)

(단위 : 명. %)

성별	구분		무응답	중졸 이하	고교 중퇴	고교 졸업	전문대 중퇴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모름	전체
남	부 학력	인원	10	5	9	131	1	13	7	105	17	131	429
		비율	2.3	1.2	2.1	30.5	0.2	3.0	1.6	24.5	4.0	30.5	100
	모 학력	인원	12	4	0	174	2	9	4	72	11	141	429
		비율	2.8	0.9	0.0	40.6	0.5	2.1	0.9	16.8	2.6	32.9	100
여	부 학력	인원	2	2	7	75	3	13	7	82	16	69	276
		비율	0.7	0.7	2.5	27.2	1.1	4.7	2.5	29.7	5.8	25.0	100
	모 학력	인원	1	6	5	118	2	5	0	68	8	63	276
		비율	0.4	2.2	1.8	42.8	0.7	1.8	0.0	24.6	2.9	22.8	100
전체	부 학력	인원	12	7	16	206	4	26	14	187	33	200	705
		비율	1.7	1.0	2.3	29.2	0.6	3.7	2.0	26.5	4.7	28.4	100
	모 학력	인원	13	10	5	292	4	14	4	140	19	204	705
		비율	1.8	1.4	0.7	41.4	0.6	2.0	0.6	19.9	2.7	28.9	100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 집의 생활수준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자신의 가정이 중간층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경기도 거주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8.5%). 반면 서울과 인천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중간층보다 한 단계 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기도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서 약간 높았다. 앞서 가정환경을 추측할 수 있는 세부항목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도 경기도지역 보다는 서울과 인천 거주 청소년들의 가정이 자동차의 소유대수나 거주공간의 넓이, 개인공간의 유무, 책의 보유량 등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기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1> 스스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수준

(단위 : 명. %)

		최하층	2	3	중간층	5	6	최상층	모른다	전체
서울	인원	4	1	14	87	68	20	3	41	238
	비율	1.7	0.4	5.9	36.6	28.6	8.4	1.3	17.2	100
인천	인원	0	0	5	31	24	8	3	14	85
	비율			5.9	36.5	28.2	9.4	3.5	16.5	100
경기도	인원	0	4	30	183	76	16	5	63	377
	비율		1.1	8.0	48.5	20.2	4.2	1.3	16.7	100
전체	인원	4	5	49	301	168	44	11	118	700
	비율	0.6	0.7	7.0	42.7	23.8	6.2	1.6	16.7	

(2) 문항간 신뢰도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영역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와 양방성 상관계수(Pearson's r)로 제시하였다.

①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총 20개 문항(태도 14개, 행동 6개 문항 포함)의 신뢰도와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III- 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00으로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의 신뢰도 변화량을 검토한 결과 9번 문항(나는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이 모두 신뢰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한 태도 및 행동척도가 거시적 맥락내에서 행동하기 즉, 자율적 행동 역량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②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에 해당하는 태도 및 행동 관련 총 20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934로 문항간의 내적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III-2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네 가지 하위요소(목표 및 과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의 신뢰도는 각각 .846, .873, .674, .87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다.

③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

태도 및 행동과 관련한 총 2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2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하위영역(흥미 이해, 규칙과 원리 이해, 욕구와 권리 주장, 대안제시) 각각의 신뢰도 역시 .917, .829, .844, .85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개발된 척도는 자율적 행동의 하위 영역을 일관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이 해당 영역을 동질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판별-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 22〉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1차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간 상관														문항								
	태도1	태도2	태도3	태도4	태도5	태도6	태도7	태도8	태도9	태도10	태도11	태도12	태도13	태도14	행동1	행동2	행동3	행동4	행동5	행동6	계거시 신뢰도	신뢰도	
태도1.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000	0.699	0.592	0.485	0.510	0.392	0.305	0.394	-0.127	0.327	0.288	0.377	0.313	0.232	0.188	0.241	0.217	0.217	0.217	0.201	0.895		
태도2.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1.000	0.611	0.495	0.487	0.435	0.297	0.392	-0.122	0.358	0.320	0.326	0.365	0.310	0.176	0.161	0.164	0.217	0.217	0.225	0.895		
태도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1.000	0.568	0.535	0.434	0.421	0.452	-0.143	0.404	0.363	0.388	0.391	0.285	0.168	0.253	0.257	0.173	0.244	0.244	0.893		
태도4.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1.000	0.732	0.472	0.348	0.442	-0.117	0.437	0.369	0.358	0.355	0.456	0.285	0.276	0.344	0.296	0.237	0.285	0.892		
태도5. 나는 나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1.000	0.492	0.369	0.437	-0.114	0.423	0.423	0.415	0.413	0.452	0.336	0.343	0.351	0.307	0.278	0.244	0.891		
태도6. 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살펴본다						1.000	0.459	0.386	-0.223	0.455	0.426	0.433	0.468	0.405	0.226	0.298	0.317	0.268	0.257	0.295	0.893		
태도7. 나는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정당한 대가라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0	0.526	-0.125	0.392	0.373	0.328	0.371	0.321	0.289	0.250	0.194	0.298	0.217	0.288	0.895		
태도8.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살펴본다								1.000	-0.183	0.434	0.396	0.430	0.408	0.395	0.266	0.270	0.311	0.270	0.226	0.344	0.893		
태도9.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1.000	-0.241	-0.140	-0.124	-0.158	-0.069	0.001	-0.043	0.012	0.028	0.002	0.002	0.914		
태도10.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1.000	0.501	0.420	0.431	0.445	0.244	0.324	0.289	0.217	0.194	0.216	0.894		
태도11.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1.000	0.654	0.523	0.416	0.237	0.312	0.470	0.328	0.265	0.312	0.893		900
태도12.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0	0.539	0.427	0.283	0.293	0.456	0.399	0.310	0.362	0.892		
태도13. 나는 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한다													1.000	0.484	0.295	0.276	0.387	0.276	0.243	0.313	0.893		
태도14.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000	0.292	0.278	0.289	0.273	0.296	0.333	0.893		
행동1. 나는 법과 규범 내에서 행동한다															1.000	0.446	0.438	0.483	0.320	0.398	0.896		
행동2.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1.000	0.440	0.371	0.250	0.298	0.897		
행동3.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1.000	0.531	0.430	0.491	0.894		
행동4.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1.000	0.544	0.447	0.895		
행동5. 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1.000	0.582	0.897		
행동6.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1.000	0.895		

〈표 III -23〉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척도의 1차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간 상관	문항-총점 상관					영역별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5	
목표 및 과제설정	1. 나는 구체적인 생활목표를 가지고 있다	1.000	0.590	0.567	0.504	0.415	0.817
	2. 나는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000	0.648	0.461	0.407	0.815
	3. 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1.000	0.591	0.482	0.795
	4.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1.000	0.598	0.810
	5. 나는 목표를 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1.000	0.835
계획수립	1.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1.000	0.708	0.546	0.462	0.601	0.846
	2. 나는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 혹은 시간을 미리 결정한다		1.000	0.596	0.515	0.627	0.834
	3.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1.000	0.574	0.621	0.846
	4.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계획을 바꾼다				1.000	0.550	0.865
	5.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000	0.840
수행	1. 나는 해야 할 일을 아무런 어려움도 끝까지 한다	1.000	0.633	0.146	0.403	0.385	0.541
	2.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1.000	0.105	0.436	0.414	0.539
	3. 나는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R)			1.000	0.131	-0.016	0.758
	4. 나는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				1.000	0.358	0.600
	5. 나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1.000	0.634
평가	1.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1.000	0.658	0.587	0.526	0.525	0.860
	2.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원하던 목표수준과 비교한다		1.000	0.714	0.571	0.525	0.845
	3. 나는 목표달성 후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한다			1.000	0.621	0.555	0.844
	4.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1.000	0.647	0.855
	5.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고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확인한다					1.000	0.864

〈표 III -24〉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1차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간 상관	문항간 상관					문항제거시 영역신뢰도	영역별 신뢰도
		문1	문2	문3	문4	문5		
흥미이해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786	0.761	0.682	0.606	0.893	0.917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696	0.646	0.536	0.905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780	0.677	0.887	
	4.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1.000	0.727	0.892	
	5. 나는 나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1.000	0.913	
규칙·원리 이해	1.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법, 규칙, 규범에 대하여 알고 있다	1.000	0.553	0.501	0.372	0.556	0.794	0.829
	2. 나는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때 희쟁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1.000	0.575	0.399	0.475	0.792	
	3.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1.000	0.568	0.453	0.781	
	4. 나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많이 생각한 후 행동한다				1.000	0.482	0.812	
	5.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795	
욕구·권리	1.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666	0.529	0.429	0.435	0.814	0.844
	2.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1.000	0.625	0.493	0.519	0.791	
	3.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000	0.554	0.473	0.802	
	4. 나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한다				1.000	0.487	0.824	
	5.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알고 있다					1.000	0.830	
대안	1. 나는 해결책을 찾을 때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을 생각한다	1.000	0.609	0.549	0.559	0.509	0.820	0.856
	2.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1.000	0.577	0.490	0.427	0.833	
	3.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찾아본다			1.000	0.599	0.518	0.819	
	4. 나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00	0.581	0.820	
	5.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1.000	0.838	

(3) 판별-수렴타당도 분석

개발한 문항이 해당 하위영역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문항이 각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수렴된다면 문항과 영역 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최대우도 추출법(Maximum likelihood extraction)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해당요인에 대한 가중치(eigenvalue) 값이 .6 이하인 문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였다.²⁹⁾

①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요인 분석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회전결과 각 요인의 설명력은 각각 16.0%, 15.7%, 15.5%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수렴된 문항을 살펴본 결과 요인1에 수렴된 문항은 사회의 관습에 대한 이해,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이해, 각 개인의 역할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와 같이 ‘체계 및 패턴 이해’에 해당하는 문항임을 알 수 있고, 요인 부하량이 .6이상인 문항 4개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요인2는 ‘행동의 선택’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미래에 도움이 되는 행동하기,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수정하기,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기 등의 4개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요인3은 ‘행동의 결과 인지’에 해당하는 문항들로서 고유값(eigen value)이 .6 이상인 문항은 2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개발한 문항은 하위영역에 동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항을 총 10개로 축소하였다.

29) 이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사용한 이유는 보다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추출하고 측정 문항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표 III-25> 거시적 맥락속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요인 분석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1.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0.742	0.134	0.180
2.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0.739	0.108	0.217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0.694	0.139	0.303
4.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0.637	0.248	0.303
5. 나는 나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0.598	0.272	0.354
4.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0.117	0.732	0.129
5. 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0.127	0.687	0.056
6.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0.135	0.656	0.154
3.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0.134	0.650	0.279
1. 나는 법과 규범 내에서 행동한다	0.195	0.563	0.123
2.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0.120	0.451	0.258
11.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0.141	0.305	0.696
12.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0.169	0.374	0.635
13. 나는 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한다	0.264	0.261	0.585
10.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0.306	0.157	0.576
6. 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살펴본다	0.408	0.212	0.517
8.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살펴본다	0.385	0.231	0.478
14.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0.311	0.284	0.455
7. 나는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정당한 대가라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314	0.219	0.401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R)	-0.131	0.119	-0.276
	16.0%	15.7%	15.5%

②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척도의 요인 분석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직교 회전결과 각 요인의 설명력은 16.6%, 15.0%, 14.2%, 7.7%로 나타났다. 각 요인으로 수렴된 문항을 살펴보면 요인1에 수렴된 문항 가운데 고유값이 .6 이상인 문항은 모두 4개로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요인2로 수렴된 문항들은 모두 ‘계획수립’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로서 고유값이 .6 이상인 문항은 역시 4개였다. 요인3으로 수렴된 문항들 중에서도 고유값이 .6 이상인 문항은 3개였는데 모두 ‘목표 및 과제설정’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수행’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수렴되었으며 이 가운데 .6 이상인 문항은 2개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개발된 문항은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동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내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문항 가운데 하위영역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항을 총 13개로 압축하였다.

<표 III-26>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8. 나는 목표달성 후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한다	0.784	0.210	0.196	0.047
17.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원하던 목표수준과 비교한다	0.770	0.260	0.177	0.044
19.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0.661	0.260	0.224	0.106
16.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0.652	0.266	0.177	0.151
20.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고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확인한다	0.590	0.250	0.290	0.189
15. 나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0.400	0.234	0.227	0.289
7. 나는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 혹은 시간을 미리 결정한다	0.254	0.771	0.202	0.087
6.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0.242	0.710	0.225	0.124
8.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0.225	0.650	0.181	0.260
10.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0.306	0.640	0.278	0.218
9.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계획을 바꾼다	0.249	0.566	0.193	0.069
3. 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0.186	0.165	0.807	0.051
2. 나는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0.127	0.264	0.687	0.046
4.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0.196	0.168	0.650	0.173
1. 나는 구체적인 생활목표를 가지고 있다	0.205	0.337	0.596	0.145
5. 나는 목표를 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0.292	0.102	0.545	0.130
11. 나는 해야 할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0.218	0.249	0.189	0.687
12.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0.281	0.240	0.224	0.672
14. 나는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	0.260	0.146	0.158	0.441
13. 나는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R)	-0.046	-0.005	-0.016	0.230
	16.6%	15.0%	14.2%	7.7%

③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요인 분석

최대우도방식에 의하여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직교 회전결과 각 요인의 설명력은 16.6%, 15.0%, 14.2%, 7.7%로 나타났다. 요인1에 수렴된 문항은 모두 ‘흥미 이해’로 분류하였던 문항들로서, 연구진이 개발한 5개의 문항이 그대로 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2에 수렴된 문항은 ‘대안 제시’로 분류하였던 문항들로서 연구진이 개발한 5개 문항이 그대로 수렴되었다. 요인3으로 수렴된 문항들은 ‘욕구·권리’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역시 5개의 문항이 그대로 수렴되었으나, 고유값이 .6이하로 나타난 2개 문항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에는 2개의 문항이 수렴되었는데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은 그대로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총 15개로 압축하였다.

<표 III-27>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862	0.138	0.150	0.116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826	0.110	0.153	0.128
4.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0.818	0.140	0.134	0.155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778	0.097	0.178	0.151
5. 나는 나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0.699	0.152	0.226	0.120
18.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찾아본다	0.151	0.700	0.230	0.165
19. 나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0.082	0.662	0.307	0.187
16. 나는 해결책을 찾을 때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을 생각한다	0.132	0.656	0.216	0.269
17.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0.092	0.651	0.203	0.229
20.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0.182	0.606	0.169	0.231
13.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0.148	0.306	0.653	0.213
11.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0.219	0.199	0.648	0.297
12.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0.210	0.328	0.635	0.320
14. 나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한다	0.230	0.293	0.553	0.088
15.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알고 있다	0.269	0.313	0.441	0.269
8.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0.163	0.382	0.213	0.635
7. 나는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때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0.180	0.264	0.216	0.607
9. 나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많이 생각한 후 행동한다	0.108	0.306	0.202	0.527
6.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법, 규칙, 규범에 대하여 알고 있다	0.236	0.205	0.427	0.497
10.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197	0.192	0.448	0.473
	18.4%	15.2%	13.4%	10.8%

(4) 선별된 척도에 대한 2차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척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문항간 신뢰도를 Cronbach's alpha와 양방성 상관계수(Pearson's r)로 측정하였다.

①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척도의 2차 신뢰도 분석

<표 III-28>과 같이 총 10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5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역량의 점수를 산출하였다.³⁰⁾

② 목표 및 과제 수립 척도의 2차 신뢰도 분석

총 13개의 문항(목표·과제설정 3문항, 계획수립 4문항, 수행 2문항, 평가 4문항)에 대한 2차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01로 나타났다. 또한 <표 III-29>와 같이 4개의 하위영역(목표 및 과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에 해당하는 척도들의 신뢰도는 각각 .795, .865, .775, .8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를 근거로 4개 하위 역량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③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의 신뢰도 분석

총 15문항의 문항(흥미 이해 5문항, 규칙·원리의 이해 5문항, 욕구·권리 5문항, 대안 제시 5문항)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09로 나타나 20문항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난 신뢰도 수준(.928)과 비교 할 때 매우 안정적이다. <표 III-30>과 같이 네 개의 하위영역 각각의 신뢰도는 흥미 이해 .917, 규칙·원리 이해 .730, 욕구·권리 .824, 대안 제시는 .856로 나타나 문항을 제외하기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30)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3개의 하위영역의 척도별 내적 일치도는 각각 .845(패턴·체계이해), .791(행동의 결과 인지), .802(행동의 선택)로 문항수의 감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행동의 결과인지역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28〉 거시적 인목척도 2차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문항간 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하위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페턴과 체계 이해	태도1.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000	0.699	0.592	0.485	0.791	.845	
	태도2.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1.000	0.611	0.495	0.785		
	태도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1.000	0.568	0.794		
	태도4.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1.000	0.839		
결과 인지	태도11.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1.000	0.654	NA	.791	.853
	태도12.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1.000	NA		
행동 선택	행동3.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1.000	0.531	0.430	0.491	0.769	.802	
	행동4.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1.000	0.544	0.447	0.751		
	행동5. 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1.000	0.582	0.740		
	행동6.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1.000	0.749		

〈표 III-30〉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 척도 2차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문항간 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하위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흥미이해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786	0.761	0.682	0.606	0.893	.917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696	0.646	0.536	0.905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780	0.677	0.887		
	4.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1.000	0.727	0.892		
	5. 나는 나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1.000	0.913		
대안	16. 나는 해결책을 찾을 때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을 생각한다	1.000	0.609	0.549	0.559	0.509	0.820	.856	
	17.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1.000	0.577	0.490	0.427	0.833		
	18.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찾아본다			1.000	0.599	0.518	0.819		
	19. 나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00	0.581	0.820		
욕구·권리 이해	20.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1.000	0.838	.824	
	11.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000	0.666	0.529	0.769		
	12.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1.000	0.625	0.701		
규격·권리 이해	13.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000	0.800	.730	
	7. 나는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때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1.000	0.575		
	8.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1.000	1.000	NA	

〈표 III-29〉 목표 및 과제 수립 척도 2차 신뢰도 분석결과

	문항	문항간 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하위 신뢰도	전체 신뢰도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평가	16.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1.000	0.658	0.587	0.526	0.840		
	17.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원하던 목표수준과 비교한다		1.000	0.714	0.571	0.804		
	18. 나는 목표달성 후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한다			1.000	0.621	0.809	.864	
	19.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1.000	0.849		
계획수립	6.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1.000	0.708	0.546	0.601	0.826		
	7. 나는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 혹은 시간을 미리 결정한다		1.000	0.596	0.627	0.810	.865	.901
	8.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1.000	0.621	0.845		
	10.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1.000	0.829		
목표 및 과제설정	2. 나는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000	0.648	0.461	0.743		
	3. 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1.000	0.591	0.628	.795	
	4.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1.000	0.786		
	11. 나는 해야 할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1.000	0.633	NA		
수행	12.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1.000	NA	.775	

(5) 역량 차이 분석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역량지표들을 기초로 자율적 행동에 해당하는 3개 영역의 역량 점수와 각 역량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역량 점수를 산출하고 그 분포를 분석해 보았다.

① 자율적 역량의 성·지역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자율적 역량과 하위 영역들에 대한 역량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욕구·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4, p<.05$). 그러나 나머지 역량점수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주장성(self assertion)을 발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흥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표 III-31> 성별에 따른 역량점수의 차이검증결과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거시적 안목	남학생	3.21	0.57	-0.88
	여학생	3.25	0.54	
목표설정	남학생	3.00	0.59	-1.17
	여학생	3.06	0.65	
욕구권리주장	남학생	3.31	0.60	-2.14**
	여학생	3.41	0.54	
자율적역량	남학생	3.18	0.51	1.65
	여학생	3.24	0.50	

** $p<.01$

거주 지역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표 I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 지역을 서울·경기·인천으로 제한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표 III-32> 거주지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서울		인천		경기도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시적맥락	3.23	0.56	3.26	0.56	3.21	0.56	.2574
목표설정	3.06	0.60)	3.06	0.62	3.00	0.62	.7929
욕구주장	3.38	0.60	3.33	0.61	3.34	0.56	.4361
자율적역량	3.22	0.51	3.21	0.48	3.19	0.50	.4005

② 부모의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

부모 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역량과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역량도 낮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역량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보다는 대학중퇴나 2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에 자녀의 역량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여 대학중퇴자가 단순 대학 미진학자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일부 시사한다.

<표 III-33> 부모 학력에 따른 자율적 역량점수의 차이

		거시적맥락		목표설정		욕구주장		자율적역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학력	고졸미만	3.18	0.58	2.80	0.65	3.39	0.69	3.13	0.55
	고졸	3.15	0.52	2.99	0.57	3.24	0.58	3.13	0.48
	대졸미만	3.30	0.48	3.08	0.59	3.46	0.50	3.28	0.41
	대졸이상	3.37	0.58	3.17	0.64	3.51	0.55	3.35	0.53
	F	6.109***		5.536***		8.155***		7.722***	
어머니 학력	고졸미만	3.10	0.54	2.90	0.58	3.31	0.64	3.11	0.44
	고졸	3.22	0.53	3.01	0.58	3.33	0.56	3.19	0.47
	대졸미만	3.20	0.58	2.84	0.61	3.14	0.50	3.06	0.51
	대졸이상	3.43	0.57	3.25	0.63	3.59	0.58	3.43	0.53
	F	6.580***		7.155***		9.026***		10.227***	

*** p< .001

③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응답자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자율적 역량과 그 하위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정 생활수준을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점수를 근거로 역량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시적 안목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점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기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Duncan방식에 의한 사후검증결과 목표 및 과제 설정 역량은 최하층이 중간층들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 최상층이 아닌 상층이 나머지 계층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기 역량은 최하층이 나머지 계층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계층들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종합한 자율적 역량 점수에 있어서도 최하층과 나머지 계층들 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34>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율적 역량의 차이

	거시적맥락		목표설정		욕구주장		자율적역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하층	2.979	0.219	2.583	0.441	2.619	0.309	2.727	0.268
하층	2.983	0.554	2.817	0.494	3.322	0.353	3.041	0.414
중하층	3.288	0.447	2.989	0.577	3.434	0.562	3.238	0.401
중간층	3.204	0.568	2.970	0.627	3.307	0.591	3.158	0.525
중상층	3.338	0.551	3.136	0.606	3.448	0.563	3.317	0.504
상층	3.314	0.656	3.384	0.643	3.560	0.692	3.427	0.588
최상층	3.333	0.303	3.148	0.345	3.670	0.504	3.384	0.257
F	1.545		4.214***		3.477**		3.762**	

*** p < .001 * p < .01

④ 자율적 역량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자율적 역량이 학교생활 만족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양방향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³¹⁾. 그 결과 자율적 행동 역량 및 그 하위 역량들과 학교적응 점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율적 행동 역량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기울기는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행동 역량이 학교생활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III-35> 자율적 역량과 학교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거시적 맥락	0.113**
목표수립과 행동	0.145***
욕구와 권리 주장	0.102*
자율적 역량전체	0.141***

*** p< .001 ** p<.01 * p<.05

⑤ 자율적 역량과 학업성적의 관계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학업성적을 전체성적과 국어·영어·수학 성적에 대해 각각 상위10%(5점)에서 하위10%(1점)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여 그 평균 점수로 응답자들의 학업성적을 정의했다. 이렇게 산출된 학업성적이 자율적 역량점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변인간의 양방성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율적 행동 역량과 그 하위 역량 모두에서 학업성적과 비교적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아 자율적 행동 전체와 학업성적의 계수는 0.3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율적 행동 역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도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31) 학교생활만족도는 본 설문지의 II-11번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와 II-12번(1번에서 4번까지)의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를 합산해서 산출하였다.

〈표 III-36〉 자율적 행동 역량과 학업성적

	학업성적
거시적 맥락	0.279***
목표수립과 행동	0.268***
욕구와 권리 주장	0.257***
자율적 역량전체	0.314***

*** p< .001

⑥ 자율적 역량과 학교 내 문제행동과의 관계

응답자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자들이 학교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에는 휴학경험, 지각, 무단결석, 교내징계가 포함되었으며 각 문제행동 영역별로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그 행동을 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질문들에 대하여 없다(1점)에서 다섯 번이상(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휴학의 경우는 욕구·권리주장 척도점수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역량점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이나 무단결석, 교내 징계의 빈도는 자율적 역량 점수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율적 행동 역량이 높을수록 교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빈도도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 휴학은 건강이나 기타 학생의 개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문제행동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III-37〉 자율적 역량과 학교내 문제행동빈도와의 상관관계

	휴학 경험	지각	무단결석	교내 징계
거시적 맥락	-0.034	-0.173***	-0.113*	-0.074
목표수립과 행동	-0.039	-0.201***	-0.105*	-0.044
욕구와 권리 주장	-0.092*	-0.182***	-0.126**	-0.129**
자율적 역량전체	-0.065	-0.223***	-0.130**	-0.097*

*** p< .001 ** p<.01 * p<.05

⑦ 자율적 역량과 건강관리의 관계

자율적 역량은 자신의 자발적인 건강관리와 관계가 있는 변인이라 판단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학교 수업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운동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침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와 자율적 행동 역량지표간의 양방향 상관계수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건강만족도는 거시적 맥락을 제외한 나머지 자율적 행동역량 지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율적 운동의 빈도와 목표수립과 행동역량과는 약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아침식사의 빈도는 모든 자율적 행동역량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를 감안하면 자율적 행동역량이 건강관리 행동과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표 III-38> 자율적 역량과 건강관련 변인의 상관관계

	건강만족도	자율운동빈도	아침식사빈도
거시적 맥락	0.063	-0.040	0.199***
목표수립과 행동	0.121**	0.095*	0.122**
욕구와 권리 주장	0.083*	-0.017	0.133***
자율적 역량전체	0.112**	0.018	0.172***

*** p< .001 ** p<.01 * p<.05

(6) 하위 영역과 종속변수의 관계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척도가 종속변수³²⁾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델 1은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에 해당하는 정·오답형 문항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

32) ① 친구들로부터 생각 좀 하며 살라는 소리를 듣는다(역문항) ② 친구들로부터 재치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③ 선생님께서 계획성이 없다는 야단을 맞는다(역문항) ④ 선생님께서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⑤ 부모님께서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⑥ 부모님께서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역문항)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행동·태도 문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델 1의 설명력(R²)은 1.4% 정도로 설명력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델 2는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행동하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하위 척도 각각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계획수립($\beta=.858, p<.001$)과 수행($\beta=.194, p<.001$)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모델 2의 설명력은 96.7%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모델 3은 욕구와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하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하위 척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규칙·원리 이해($\beta=.084, p<.05$)와 대안 제시($\beta=.047, p<.001$)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델 3의 설명력은 36.2%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4는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척도를 통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개별 모델이 미치는 영향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의 경우 정·오답형의 영향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행동·태도 문항은 정적관계로 나타났다으며, 목표 및 과제수립에서는 모델 2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요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와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기에서는 모델 3에서 규칙·원리 이해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모델에서는 욕구·권리가 영향($\beta=-.023, p<.05$)을 미치며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제시 항목은 모델 3과 비교할 때 통합모델에서는 유의도가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자율적 행동의 하위척도의 문항을 일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적 행동 여부를 판단하는 종속변수(6개 문항) 역시 연구진이 자체개발한 것이므로 종속변수가 자율적 행동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표 III-39> 자율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β	t	β	t	β	t	β	t
거시적 맥락	정오답형 ¹⁾	0.106	2.762**					0.021	2.881**
	행동태도	-0.038	-0.989					0.011	1.544
목표 및 과제 수립	목표·과제설정			0.010	1.167			0.004	0.471
	계획수립			0.858	90.610***			0.856	89.390***
	수행			0.194	23.295***			0.194	22.722***
	평가			0.010	1.116			-0.006	-0.565
권리 욕구 이해 주장	흥미이해					-0.009	-0.267	0.000	0.028
	규칙원리이해					0.084	2.078*	0.012	1.310
	욕구권리					0.116	2.799*	-0.023	-2.407*
	대안					0.472	11.485***	0.032	2.861**
상수		11.258***		5.390***		6.279***		0.454	
R ²		.014		0.967		.362		0.968	
		F=4.934**		F=5023.592***		F=3374.513***		F=2047.975***	

주: 1) 정·오답형 문항은 점수를 산출하여 맞힌 문항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총 14점이 만점임.

(7) 확인적 요인분석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영역 각각의 척도가 측정도구로서 타당한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³³⁾ 그러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개념 또는 요인은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사용하므로(김계수, 2004: 346) 종속변수를 정·오답형으로 할 때와 같이 측정변수가 1개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오답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를 제외하고, 연구진이 개발한 6개 문

33)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 모형을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된 측정도구의 가설모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04). 가설모형의 인정 및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와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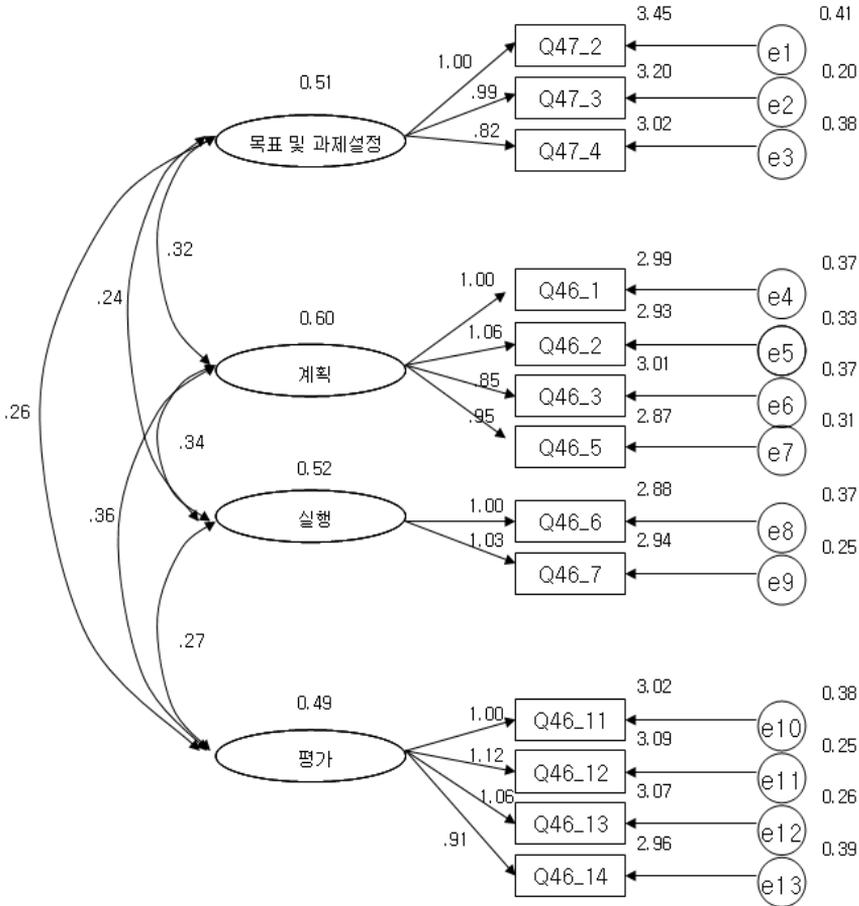
항으로 구성된 종속변수와 나머지 두 하위영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기의 경우 Chi-square 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의 크기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³⁴⁾ CFI(.960), RMSEA(.066)와 같은 절대적합지수와 NFI(.948)의 증분적합지수의 적합도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기 척도에 해당하는 4개 요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한 측정모형에서 요인 부하량이 .82~1.12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요인부하량을 고려할 때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기 척도의 4요인 구조모형이 수용할 만하며 4요인 구조모형이 관측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측정도구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0> 목표 및 과제 수립하기 척도의 가설모형 적합도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X ²	df	p	CFI	RMSEA	NFI
최적지수			.05이상	1	0	1
수용기준			.05이상	.9이상	.06이하	.9이상
가설모형	241.428	59	.000	.960	.066	.948

34) 카이자승 검증의 경우 모형이 변인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엄격한 가설을 영가설로 설정하고 있어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이 기각된다(조용래, 2004)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결과를 측정모형의 적합성 평가지수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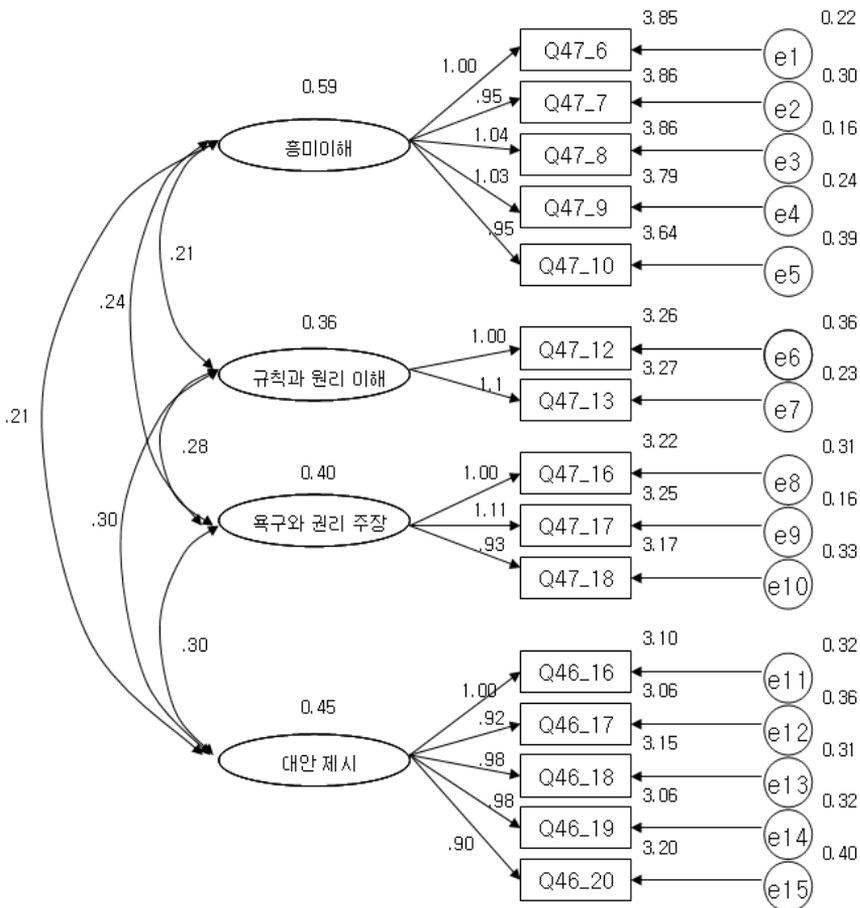


[그림 III-9]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기 척도 4요인 간 상관 가정 모형

다음으로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의 경우 역시 Chi-square 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합지수 CFI(.957), RMSEA(.066), 증분적합지수 NFI(.944)의 적합도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에 대항하는 4개 요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한 측정모형에서 요인 부하량이 .90~1.11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요인 부하량을 고려할 때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척도의 4요인 구조모형이 수용할 만하며 관측 데이터에 적합하다 볼 수 있어 측정도구로 적합하다 하겠다.

<표 III-41>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척도의 가설모형 적합도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X ²	df	p	CFI	RMSEA	NFI
최적지수			.05이상	1	0	1
수용기준			.05이상	.9이상	.06이하	.9이상
가설모형	340.007	84	.000	.957	.066	.944



[그림 III-10]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4요인 간 상관 가정 모형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생애핵심역량과 관련하여 1997년부터 OECD가 추진하여 온 DeSeCo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DeSeCo는 생애핵심역량은 ①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②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③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는 자율적 행동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하면서도 개발이 요구되며 생애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DeSeCo에서 제안하는 역량은 사회와 개인을 위하여 가치로운 산출(outcomes)에 기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요구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역량은 개발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한 측정이 가능한 개념임을 강조하여 주요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역량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DeSeCo와 선행연구를 통해 자율적 행동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권리와 욕구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주장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은 가치와 정체성을 개발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자율을 상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자율적 행동의 하위요소로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등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먼저, 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는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

고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기'로 개념화하였다.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으로,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역량'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함께 각 하위요소의 개념과 세부항목, 그리고 문항 개발을 위하여 측정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DeSeCo, PISA, EFF 등의 논의를 반영하여 자율적 행동의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를 최종 개발하였다.

<표 IV-1> 자율적 행동 측정지표

하위요소	측정영역	개념	문제유형 (최종 문항수)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사회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이해	정오답형(14) 행동·태도(10)
	체계이해	관습·도덕·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 태도	
	행동의 결과 인지	행동의 결과 예측	
	행동의 선택	행동의 결과를 통제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목표 설정과 계획의 수정	행동·태도(13)
	계획수립	정보 수집 및 구체적 계획 수립	
	수행	과업 완수에 대한 의지와 신중한 행동	
	평가	결과 검토와 의견 수립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흥미 이해	관심·흥미에 대한 이해	행동·태도(15)
	규칙과 원리 이해	법·규칙과 상황 원리에 대한 이해	
	욕구·권리	욕구·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	
	대안 제시	주장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해, 태도	

첫째,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영역의 경우 지필검사 방식의 정·오답형 문항을 포함하여 측정된 결과, 정·오답형 문제에서 총점이 높을수록 자율적 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자율적 행동 정도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역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종속변수가 과연 자율적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가의 문제가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

둘째,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의 경우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계획수립과 수행의 경우 자율적 행동(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목표·과제설정과 평가의 경우 자율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종속변수가 갖는 한계를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욕구와 권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주장하기는 문항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행동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언

자율적 행동과 관련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해 내기 위해서는 지필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컴퓨터기반 검사와 같이 지필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상호작용적인 검사도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는 대규모 조사를 감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었으므로 선택형 문항 즉, 정·오답형 문항과 행동 여부와 태도에 대한 정도(리커트 척도 사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됨에 따라 측정방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역량은 어떻게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측정도구의 문항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DeSeCo에서 제안한 자율적 행동의 개념과 하위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므로, 자율적 행동 척도를 사용

하고자 할 때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과 하위요소를 참고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자율적 행동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량이 함께 동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소와 각 하위요소의 행동준거들 간의 관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예비조사 결과 여학생 보다 남학생,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가정의 경제 수준이 최하층일 때 자율적 행동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적 행동은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 건강관리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율적 행동 역량이 높을수록 학교 내에서의 문제 행동 유발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교 2학년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자율적 행동 역량과 청소년의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율적 행동의 세 하위영역이 자율적 행동을 설명하는 종속변수(6 문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각 하위영역에 따라 모델 설명력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6문항) 역시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문항이라는 점에서 종속변수가 자율적 행동 정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 행동의 문항을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행동 역량에 대한 연구결과가 타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자율적 행동이 우리나라 청소년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및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영역체계와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미래를 여는청소년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김계수(1998).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김미숙·김현수·박종성·박윤희(1998). 기술분야 기초직업능력 인증제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나 외(2003).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모(2001).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직업 교육 연구, Vol.20 No.2, pp. 109-128.
- 김태준·김남희·김주섭·정지선(2002).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설정 및 성인 학습체제 질 관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김안나·김남희·이병준·한준(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흥원(1995). 새 학력관과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 전라북도교육연구원. 연구월보 258('95.12) pp.67-72.
- 나승일 외(2004). 기초직업능력 표준개발(2차년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한국산업인력공단.
- 나승일·강인수·정철영·허종렬·마상진·김강호(2002). 선진국의 직업교육법제 동향과 시사점. 직업 교육 연구, Vol.22 No.3, pp. 177-200.
- 나승일·김주섭·김주일·정연앙·구자길·김강호·문세연(2007). 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9 No.1 [2007], pp. 191-215.
- 노동부(2000). 중·고등학생용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 소경희(2006). 학교지식의 변화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39-59.
- 소경희(2007). 학교교육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pp. 1-21.
- 신명훈·이동임·김상진·김덕기·이현수·김광용·정일용(1999). 직업능력인증제도 입을 위한 외국의 운영실태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양미경(1997). 교과 통합지도의 의의 및 방법적 원리 탐색. 교육학연구, Vol.35 No.4, pp. 111-132.

- 유현숙·김안나·김태준·김남희·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김진화(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윤명희·김진화(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49호, pp. 173~197.
- 이동임 외(2000). 직업능력인증제 운영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미경·박선화·손원숙·남민우(2006). 2006년도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PISA): PISA 2006 본검사 시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석재 외(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환·이무근·나승일·정철영·이종성·정태화·배진한·최애경(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직업 교육 연구, Vol.16 No.2,
- 임언·최동선·최지희·오은진(2004).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조사 연구: OECD ALL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지침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최동선·오은진(2005).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 OECD ALL Project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최동선·오은진(2005). 한국의 성인직업기초능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의 연역 분류 및 하위 요소 추출. 17(2), pp.15-38.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 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용래(2004). 한국판 불안민감성 지표의 요인구조: 위계적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3(1): pp. 207~20.
- 진미석·이수영·채창균·유한구·박천수·이성·최동선·옥준필(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선미(2001). 장기실업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임파워먼트 모델개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2000).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 한승희 외(2004). 교육학의 새로운 지표로서 내러티브. 교육학연구 38(4) 259-282.

- Assessment and Qualifications Alliance(2000). Key Skills.
- Bandura, Albert(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5).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Key Competencies for Lifelong Learning.
- EURYDICE(2002). Key Competencies.
- Gerten, Annette.(2000). Guidelines for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Diagnosed with Conduct Disorder. Social Works in Education, pp.132-144.
- Gilomen, Heinz(2003). Desired outcomes: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Guglielmino, L. M.(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Knowles, M. S.(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 and teacher. NY: Association Press.
- Mahoney, M. J. and Thoresen, C. E.(1974). Self-control: Power to the person. CA: Books/Cole.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cLagan, P.(1980). Models for HRD Practice, Alexandria, VA: Th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 Mirable, R. J.(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Mulder, Martin(2007). Competence - the essence and use of the concept in ICVT. Journal of Vocational Training, issue 40, pp. 5-21.
- Murray, T. Scott(2003). Reflection on international Competence assessments: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OECD(2001).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s(DeSeCo).
- _____(2001). DeSeCo Country Contribution Process(CCP).

- _____ (2005a).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_____ (2005b) Learning a Living: First Result of the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 _____ (2007). Assessing Scientific Reading and Mathematical Literacy. A Framework for PISA 2006.
- Parry, S. B.(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Competency studies can help you make HR decision, but the results are only as good as the study. *Training*, 33(7), 48-56
- Perrenoud, D. and Gogniat, T. and Olmstead, W(2001). *DERMATOLOGIE IN BERUF UND UMWELT*, Vol.49 No.1, pp. 88-90.
- Rychen, Dominique Simon and Siganik, Laura Hersh(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_____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Rychen, Dominique Simon(2002). *Key Competencies for the knowledge Society*,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_____ (2002). *Key Competencies for the Knowledge Society*. Life long Learning and the Knowledge Economy, Conference in Stuttgart, October 10-11.
- _____ (2003). An overarching frame of reference for key competencies - is the OECD Perspective relevant for the South?: Working Group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kills Development. 28-29 April 03.
- _____ (2003). *Key competencies: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_____ (2004). An overarching conceptual framework for assessing key competenc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Lesson from an interdisciplinary and policy-oriented approach.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p. 315-328.
- Rychen, Dominique Simon and Siganik, Laura Hersh(2003).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_____ (2003).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 _____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leicher, Andreas(2003). Developing a long-term strategy for international assessments: Meeting important challenges in lif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unk, Dale H. and Zimmerman, Barry J(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Springer.
- Sink, C. A. et al.(1991).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ED 334270).
- Spencer, L. and Spencer, S.(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Siganik, Laura Hersh and Maria, Steephens(2003). Competence priorities in policy and practice: Key Competencie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Trier, Uri Peter(2001). 12 Countries Contributing to DeSeCo - A Summary Report. OECD.
- Wood, R. and Payne, T.(1998). Competency Based Recruitment and selection, A practical Guide. NY: John Wiley.
- Zimmerman, B. J.(1989). Model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 J. Zimmerman, and D. H. Schunk(eds). Self 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1-25. New York: Springer-Verlag.

부 록

1.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2. 예비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 전문가 의견 조사
4. 전문가 의견(추가 및 수정안)
5. 자율적 행동 역량 측정도구(선별된 최
종문항)

부록 1.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현재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하는 생애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밝혀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향후 역량기반 학습체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연구책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137-715)
(☎ 02-2188-8880/e-mail: kihuns@nypi.re.kr)

5-3) 자기방 (혼자사용)

___ ① 없음

___ ② 있음

5-4) 피아노

___ ① 없음

___ ② 있음

5-5) 책(잡지·신문·만화·교과서·참고서 등은 제외)

___ ① 0-10권 ___ ② 11-25권 ___ ③ 26-100권

___ ④ 101-200권 ___ ⑤ 201-500 ___ ⑥ 501권 이상

6. 우리 가정의 생활수준을 1부터 7까지로 표현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하나요?

최하층			중간층			최상층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구분	거의 없었음	1년에 가끔	한 달에 가끔	한 달에 자주	일주일에 자주
(1)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	()	()	()	()
(2)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	()	()	()	()
(3)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	()	()	()	()
(4) 본인의 고민에 관한 대화	()	()	()	()	()
(5) 함께 저녁식사	()	()	()	()	()
(6) 함께 여가 활동	()	()	()	()	()

8.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요?

___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___ ② 건강하지 않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건강하다

___ ⑤ 매우 건강하다

9. 학교 체육 수업시간 외에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 _____ ① 거의 하지 않는다 _____ ② 일주일에 1~2회
 _____ ③ 일주일에 3~4회 _____ ④ 일주일에 5~6회
 _____ ⑤ 일주일에 7회 이상

10. 아침식사를 하나요?

- _____ ① 매일 먹지 않는다 _____ ②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다
 _____ ③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 _____ ④ 매일 먹는다

II. 다음은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1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나요?

- _____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_____ ② 불만족스럽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스럽다 _____ ⑤ 매우 만족스럽다

12. 다음은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12-2)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12-3)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12-4)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12-5)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13. 학교생활 중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나요?

구분	없었다	한 두 번	서너 번	다섯 번 이상
(1) 휴학 경험	()	()	()	()
(2) 지각(한 달을 기준)	()	()	()	()
(3) 무단결석	()	()	()	()
(4)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등교 정지 등의 징계	()	()	()	()

14. 학교 성적은 현재 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또한, 국어·영어·수학 성적은 어느 수준인가요?

구분	상위 1~20%	중상위 21%~40%	중간 41%~60%	중하위 61%~80%	하위 81%~100%
(1) 전체 성적	()	()	()	()	()
(2) 국어 성적	()	()	()	()	()
(3) 영어 성적	()	()	()	()	()
(4) 수학 성적	()	()	()	()	()

15.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창업포함)을 정해 놓았나요?

- _____ ① 아직 정해 놓은 직업이 없다
 _____ 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_____ ③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16. 앞으로 어느 학력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나요?

- _____ ① 중졸 _____ ② 고졸 _____ ③ 전문대졸(2-3년제)
 _____ ④ 대졸(4년제) _____ ⑤ 대학원졸(석사 및 박사)
 _____ ⑥ 잘 모르겠다

II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1.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적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노인인구의 변화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2) 출산율의 변화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3) 평균수명의 변화

길어지고 있다 ____ 짧아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4) 학생수의 변화

늘어나고 있다 ____ 줄어들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5) 결혼하는 연령의 변화

느려지고 있다 ____ 빨라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6)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2.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표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나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 | | |
|----------------------|--------------------|
| ____ 1)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 ____ 2) 학생들이 줄어든다 |
| ____ 3)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 ____ 4)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

3. 다음은 노래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음반을 구매하는 방법	장점	단점
음반가게나 온라인 매장에서 정품을 구입한다	품질이 보장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상 받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 원하는 노래만 구입하기 어렵다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 한다	비용이 절감 된다 빨리 구매할 수 있다	(1)

3-1) (1)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sqrt{\quad}$ 표 하세요.

- ___ ① 음질이 나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 ___ ② 양심에 걸린다
- ___ ③ 좋은 음악을 만드는 가수들이 줄어든다
- ___ ④ 비용이 많이 든다
- ___ ⑤ 언뜻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 ___ ⑥ 음반 시장이 축소된다
- ___ ⑦ 고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2)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sqrt{\quad}$ 표 하세요.

음반을 사지 않고 불법다운로드를 한다 → ? → 좋은 노래가 줄어든다

- ___ ① 음반 판매량이 줄어든다
- ___ ② 파일 공유 업자가 늘어난다
- ___ ③ 불법복제 방지 기술이 발전한다
- ___ ④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커진다

3-3) A라는 사람이 가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때 A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checkmark 표 하세요.

음반 불법다운로드를 한다 ➡ 음반시장이 축소된다 ➡ 음반업계 종사자들이

줄어든다 ➡ ?

- ___ ① 가수로 데뷔할 기회가 줄어든다
- ___ ② 가수로 데뷔할 기회가 늘어난다
- ___ ③ 음반구입비가 싸진다
- ___ ④ 음반구입비가 비싸진다

V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checkmark 표 해 주십시오.

1.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어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checkmark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2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3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4 나는 나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있다					
5 나는 나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6 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인을 살펴본다					
7 나는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정당한 대가라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8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살펴본다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10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11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12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13 나는 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한다					
14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읽어 보고 어느 정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생각되는 번호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법과 규범 내에서 행동한다					
2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3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4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5 나는 행동의 결과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6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3.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읽어 보고 어느 정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생각되는 번호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친구들로부터 생각 좀 하며 살라는 소리를 듣는다					
2 친구들로부터 재치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3 선생님으로부터 계획성이 없다는 야단을 맞는다					
4 선생님으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5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6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4.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을 읽어 보고 어느 정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생각되는 번호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2 나는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 혹은 시간을 미리 결정한다					
3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4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계획을 바꾼다					
5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6 나는 해야 할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7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8 나는 처음엔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싫증이 나면 그만둔다					
9 나는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					
10 나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11 나는 계획한 일이 잘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문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2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원하던 목표수준과 비교한다					
13	나는 목표달성 후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한다					
14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15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고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확인한다					
16	나는 해결책을 찾을 때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을 생각한다					
17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18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찾아본다					
19	나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5. 아래에 제시된 항목들을 읽어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구체적인 생활목표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4	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5	나는 목표를 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6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8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9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10	나는 나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나는 내가 속한 사회의 법, 규칙, 규범에 대하여 알고 있다					
12	나는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때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13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14	나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많이 생각한 후 행동한다					
15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6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7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18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	나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한다					
20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알고 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예비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성별 및 거주지 현황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429명(60.8%), 여학생은 276명(39.2%)으로 남학생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381명(54.04%), 서울지역 거주자 239명(33.9%), 인천거주자 85명(12.05%) 순이다.

<표 1> 응답자 현황

		성별		Total
		남학생	여학생	
거주지	서울	165	74	239
	인천	43	42	85
	경기도	221	160	381
Total		429	276	705

2. 형제자매

형제의 숫자는 평균 2.01명이며 남자형제는 평균 1.08명, 여자형제(자매)는 0.93 명이다. 남학생의 경우 형제숫자는 1.95명, 여학생은 2.10명으로 성별에 따른 형제숫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736, p< .01$).

〈표 2〉 형제자매 현황

거주지	형제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Total
서울	남자형제	49	116	68	5	1	239
		20.5%	48.5%	28.5%	2.1%	0.4%	100%
	여자형제	86	104	44	5	-	239
		36.0%	43.5%	18.4%	2.1%		100%
인천	남자형제	21	46	17	1	-	85
		24.7%	54.1%	20.0%	1.2%		100%
	여자형제	28	39	16	1	1	85
		32.9%	45.9%	18.8%	1.2%	1.2%	100%
경기도	남자형제	77	206	91	7	-	381
		20.2%	54.1%	23.9%	1.8%		100%
	여자형제	112	183	71	14	1	381
		29.4%	48.0%	18.6%	3.7%	0.3%	100%
전체	남자형제	147	368	176	13	1	705
		20.9%	52.2%	25.0%	1.8%	0.1%	100%
	여자형제	226	326	131	20	2	705
		32.1%	46.2%	18.6%	2.8%	0.3%	100%

3. 부모 학력

모(母) 학력은 고교졸업이 41.4%로 가장 많고 부(父)는 대졸업이 26.5%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28.4%, 28.9%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 부모학력분포 (성별)

(단위: 명, %)

성별	구분		무응답	중졸 이하	고교 중퇴	고교 졸업	전문대 중퇴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모름	전체
남	부 학력	인원	10	5	9	131	1	13	7	105	17	131	429
		비율	2.3	1.2	2.1	30.5	0.2	3.0	1.6	24.5	4.0	30.5	100
	모 학력	인원	12	4	0	174	2	9	4	72	11	141	429
		비율	2.8	0.9	0.0	40.6	0.5	2.1	0.9	16.8	2.6	32.9	100
여	부 학력	인원	2	2	7	75	3	13	7	82	16	69	276
		비율	0.7	0.7	2.5	27.2	1.1	4.7	2.5	29.7	5.8	25.0	100
	모 학력	인원	1	6	5	118	2	5	0	68	8	63	276
		비율	0.4	2.2	1.8	42.8	0.7	1.8	0.0	24.6	2.9	22.8	100
전체	부 학력	인원	12	7	16	206	4	26	14	187	33	200	705
		비율	1.7	1.0	2.3	29.2	0.6	3.7	2.0	26.5	4.7	28.4	100
	모 학력	인원	13	10	5	292	4	14	4	140	19	204	705
		비율	1.8	1.4	0.7	41.4	0.6	2.0	0.6	19.9	2.7	28.9	100

4. 가정 경제수준(PISA 문항)

가정 내 경제수준은 PISA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항을 참고하여 자동차 보유 현황, 욕실의 개수, 개인 방 소유 여부, 피아노 소유, 소장하고 있는 책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각 항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자동차 보유

(단위: 명, %)

		없음	1대	2대	3대이상	전체
서울	인원	41	146	48	4	239
	비율	17.2	61.1	20.1	1.7	100
인천	인원	8	54	20	3	85
	비율	9.4	63.5	23.5	3.5	100
경기도	인원	49	231	89	12	381
	비율	12.9	60.6	23.4	3.1	100
전체	인원	98	431	157	19	705
	비율	13.9	61.1	22.3	2.7	

<표 5> 욕실

(단위: 명, %)

		없음	1개	2개	3개이상	전체
서울	인원	4	133	97	5	239
	비율	1.7	55.6	40.6	2.1	100
인천	인원	1	27	54	3	85
	비율	1.2	31.8	63.5	3.5	100
경기도	인원	8	230	135	8	381
	비율	2.1	60.4	35.4	2.1	100
전체	인원	13	390	286	16	705
	비율	1.8	55.3	40.6	2.3	

<표 6> 자기 방 소유 여부

(단위: 명, %)

		없음	있음	전체
서울	인원	60	179	239
	비율	25.1	74.9	100
인천	인원	8	77	85
	비율	9.4	90.6	100
경기도	인원	92	289	381
	비율	24.1	75.9	100
전체	인원	160	545	705
	비율	22.7	77.3	100

<표 7> 피아노 소유 여부

(단위: 명, %)

		없음	있음	전체
서울	인원	136	103	239
	비율	56.9	43.1	100
인천	인원	47	38	85
	비율	55.3	44.7	100
경기도	인원	228	153	381
	비율	59.8	40.2	100
전체	인원	411	294	705
	비율	58.3	41.7	100

<표 8> 소장하고 있는 책(권수)

(단위: 명, %)

		0-10권	11-25권	26 -100권	101 -200권	201 -500권	501권 이상	전체
서울	인원	11	20	81	58	44	25	239
	비율	4.6	8.4	33.9	24.3	18.4	10.5	100
인천	인원	6	11	28	18	18	4	85
	비율	7.1	12.9	32.9	21.2	21.2	4.7	100
경기도	인원	49	54	140	72	47	19	381
	비율	12.9	14.2	36.7	18.9	12.3	5.0	100
전체	인원	66	85	249	148	109	48	705
	비율	9.4	12.1	35.3	21.0	15.5	6.8	

5. 주관적 생활수준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중간층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비율(48.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인천은 중간층보다는 약간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경제수준(PISA 문항)에서 서울, 인천 거주 청소년이 자동차의 소유 현황, 거주공간의 넓이, 개인공간의 유무, 책의 보유량 등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기평가가 적절하였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표 9> 생활수준(주관적 평가)

(단위: 명, %)

	인원	최하층	2	3	중간층	5	6	최상층	모른다	전체
서울	비율	4	1	14	87	68	20	3	41	238
	인원	1.7	0.4	5.9	36.6	28.6	8.4	1.3	17.2	100
인천	비율	0	0	5	31	24	8	3	14	85
	인원			5.9	36.5	28.2	9.4	3.5	16.5	100
경기도	비율	0	4	30	183	76	16	5	63	377
	인원		1.1	8.0	48.5	20.2	4.2	1.3	16.7	100
전체	비율	4	5	49	301	168	44	11	118	700
	인원	0.6	0.7	7.0	42.7	23.8	6.2	1.6	16.7	

부록 3. 전문가 의견 조사

※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린 설문지는 총 16매입니다. 설문지를 보시고 **문항과 내용이 중학생 (조사대상 중2) 수준에서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적절한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용어가 어렵다고 여겨지시는 경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해 주십시오(추가 및 수정안). 설문지에 직접 표기한 경우 설문지와 본 지를 함께 10월 15일(수)까지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타당성과 적절성은 해당하는 곳에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단, **타당성**은 각 문항이 해당 영역(I, II, III, IV, V, VI)을 알고자 함에 있어 타당한 문항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척도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여기에서 핵심역량은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된 영역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표1> OECD DeSeCo의 핵심역량 영역체계의 정의

핵심역량	정의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다원화되고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적절성은 각 문항의 내용과 기술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어법 포함)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항에 ① 혹은 ②로 표시한 경우 가능한 한 추가 및 수정안에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란에는 각 영역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②	③
부적합하다	그저그렇다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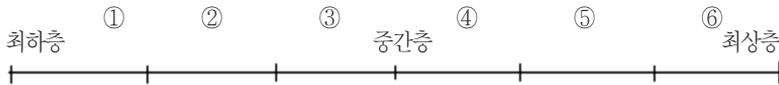
항목 번호 () 하위 문항 수	타당성			적절성			추가 및 수정안
	①	②	③	①	②	③	
I. 일반적 사항							
1 성별	①	②	③	①	②	③	
2 지역	①	②	③	①	②	③	
3 형제	①	②	③	①	②	③	
4 학력	①	②	③	①	②	③	
5 여건(5)	①	②	③	①	②	③	
6 생활수준	①	②	③	①	②	③	
7 부모-자녀관계 (6)	①	②	③	①	②	③	
8 주관적 건강	①	②	③	①	②	③	
9 운동	①	②	③	①	②	③	
10 아침식사	①	②	③	①	②	③	
종합의견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전문가 의견(추가 및 수정안)

항목 번호	추가 및 수정안
I.일반적 사항	
1 성별	김○○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2 지역	이○○ : 군소재지에 사는 청소년일 경우 애매함. 예)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군·읍·면 진○○ : 광역시?? 중소도시?? 의미 파악이 안됨. 예후 들어줄것
3 형제	
4 학력	이○○ : 양부모, 편모, 편부의 경우 해당란이 있어 표기에 용이하게 답할 수 있으나 설문 시 개인사정을 밝히기 싫어 부정확 답변으로 오차의 범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으로 수정 김○○ : 요즘은 중졸이하 졸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학생들을 자존심 상 학력이 낮은 경우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을 주므로, 부모님의 학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필요하다면 초졸, 중퇴는 중졸이하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 : 부모님의 학력을 이렇게 세분화해야 하는 건지 의문? 황○○ : 용어사용 부적절(전문대라는 용어 사용은 하지 않음) 진○○ : 너무 세부적이므로 초졸/중졸/고졸/2년제 대학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졸으로 재구분. 부모 학력에 대한 질문에 거부감을 보이는 학생이 더러있었음
5 의견(5)	이○○ : 5-(1~5)소수의 학생에게서 과장된 답변이 예상됨 김○○ : ‘우리집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장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로 수정 곽○○ : 문제에서 비치란 단어 삭제, 책을 사지 않고도 도서관이나 도서대출업체로부터 빌려 읽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5-5문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김○○ : 자기책상, 책, 욕실 항목 부적절, 이 항목은 삭제가 가장 좋음. 조사에 필수적인 조항이라면, 피아노, 홈시어터, 벽걸이 TV 등 요즘 문화생활의 척도를 가름하는 항목으로 수정 요망 김○○ : 문) 들이 얼마나 <u>비치돼</u> →들을 얼마나 <u>갖고</u> 로 수정 5-2) 욕실(화장실) ①없음(다른 집과 같이 사용함 : 공동화장실) 추가 이○○ : 5-3문항 혼자 사용하는 자기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음. 예를 형제와 함께 사용하는 방인 경우 자기 방이 아닌지? dh-green : ‘비치돼’삭제, 5-5책(해당은 삭제, 제외만 표시)

	<p>김○○ : 문항중 인터넷 사용 가능여부 및 자기컴퓨터 보유 여부 추가 요망</p> <p>황○○ : 5-5) 해당과 제외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p> <p>꿈하늘 : 경제적 환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표의 의미를 잘 모르겠음</p> <p>5-3 혼자 사용하는 자기방</p> <p>보통 혼자 사용하는 공부방보다는 형제끼리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자기방소유의 의미는?</p> <p>공부방이 있는가? 혹은 방의 개수는? 이러한 질문은 어떤지..</p> <p>5-4 보통 가정에서는 책상을 공용으로 쓰고 있음. 자기책상 소유에 대한 의미는?</p>															
<p>6 생활수준</p>	<p>이○○ : 중학생의 경우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최하층, 극빈에 대한 가치기준이 모호하고 경제적인 개념이 확립이 없어 월평균수입으로도 부모의 수입을 모르기에 힘든 부분임</p> <p>곽○○ : 생활수준의 기준이 모호함.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 본인이 느끼는 생활수준을 답할 경우가 많음</p> <table border="1" data-bbox="319 852 964 942"> <tr> <td>최하층</td> <td>하</td> <td>중</td> <td>상</td> <td>최상층</td> <td>모르겠다</td> <td>로 수정</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d></td> </tr> </table> <p>김용우 :</p> <p>이○○ : 생활 수준을 %와 함께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p> <p>예) 최상위(상위10%이상) 최하위(하위10%이하)</p> <p>dh-green : 중→중간층</p> <p>황○○ : 비워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p> <p>진○○ : 우리 가정의 생활수준을 1부터 7까지 수준으로 표현하다면 우리집의 생활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인가? 1번은 최하층, 4번은 중간, 7번은 최상층입니다. 잘 모를 경우는 8번을 체크해 주세요</p>	최하층	하	중	상	최상층	모르겠다	로 수정	①	②	③	④	⑤	⑥		
최하층	하	중	상	최상층	모르겠다	로 수정										
①	②	③	④	⑤	⑥											
<p>7 부모-자녀관계(6)</p>	<p>김○○ : 자주 3~4회, 가끔 1~2회 로 하면 어떨까요?</p> <p>곽○○ : 학생본인이 고민이 없다고 느낄 때는 (4)문항에 대한 답은 거의 없었음에 답할 것 같음. 부모님과 친밀도를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적합한 것 같음</p> <p>김○○ :</p> <table border="1" data-bbox="319 1456 981 1570"> <tr> <td>원본</td> <td>1년에 가끔</td> <td>한달에 가끔</td> <td>한달에 자주</td> <td>일주일에 자주</td> </tr> <tr> <td>추가</td> <td>(5회이하)</td> <td>(2회이하)</td> <td>(3회이상)</td> <td>(2회이상)</td> </tr> <tr> <td colspan="5">예) 1년에 가끔→1년에 가끔(3회이하) 등 구체적 제시가 적절함</td> </tr> </table> <p>이○○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기 위한 질문인데 대화의 빈도와 활동을 복합적으로 묻는 질문이므로 초점을 단순화해서 2문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질문을 바꾸어야 할 듯 합니다.</p>	원본	1년에 가끔	한달에 가끔	한달에 자주	일주일에 자주	추가	(5회이하)	(2회이하)	(3회이상)	(2회이상)	예) 1년에 가끔→1년에 가끔(3회이하) 등 구체적 제시가 적절함				
원본	1년에 가끔	한달에 가끔	한달에 자주	일주일에 자주												
추가	(5회이하)	(2회이하)	(3회이상)	(2회이상)												
예) 1년에 가끔→1년에 가끔(3회이하) 등 구체적 제시가 적절함																

	<p>예)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인가요? 부모님과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까?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 : 여행/취미활동/청소년행사 참여 등 추가 진○○ :</p> <table border="1" data-bbox="329 476 1068 637"> <tr> <td>1년에 가끔 1년에 한두번</td> <td>한 달에 가끔 한 달에 14 이하</td> <td>한 달에 자주 한 달에 15회 이상</td> <td>일주일에 자주 일주일에 3일 이상</td> </tr> </table> <p>가끔과 자주에 대한 빈도 구분이 주관적일 수 있음. 횟수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음.</p>	1년에 가끔 1년에 한두번	한 달에 가끔 한 달에 14 이하	한 달에 자주 한 달에 15회 이상	일주일에 자주 일주일에 3일 이상
1년에 가끔 1년에 한두번	한 달에 가끔 한 달에 14 이하	한 달에 자주 한 달에 15회 이상	일주일에 자주 일주일에 3일 이상		
8 주관적 건강					
9 운동	<p>이○○ : 보기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예)학교에서 체육시간 외에 1시간 이상 운동하는 횟수는? ① 거의하지 않는다 ②1주일에 1~2회 ③일주일에 3~4회 ④일주일에 5~6회 ⑤일주일에 7회이상 김○○ : 걷기/자전거/줄넘기 등 예시</p>				
10 아침식 사	<p>이○○ : 역시 ②③은 회수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예)①매일 먹는 편이다. ②5~6회 먹는다. ③3~4회 먹는다.④1~2회 먹는다⑤전혀 먹지 않는 편이다. 진○○ : 매일 먹는다 /일주일에 3번이상 먹는다 / 일주일에 2번 정도 먹는다 / 매일 안 먹는다. 보기 순서 전혀 먹지 않는다에서 매일 먹는다의 순서가 낮을 듯...</p>				
종합의견	<p>이○○ :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조사전 지도를 통해 관련법규(통계법) 등을 설명, 이해 시켜도 오차의 범위는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검사 또는 지능 검사, 직업 흥미검사 때처럼 설문지의 연구 목적, 사용용도에 충분한 학생의 이해가 중요한 만큼 바른 답변에 응하도록 사전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김○○ : 6번 문항은 그래프 형태로 하면 어떨까요? </p> <p>곽○○ : 예민한 청소년기에 가정환경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은 얻어내기 힘들 듯 함. 실제로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시에도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p>				

	<p>이○○ : 조금 어려운 듯 dh-green : 20% 삭제</p> <p>김○○ : 전체와 국영수외에 체육 미술등 예능쪽도 파악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p> <p>황○○ : 전체 석차는 알 수 있겠지만, 과목별 석차를 학생들이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p> <p>진○○ : 상위 0-20% 상위21-40% 상위 41-60 상위61-80 상위81-100 로 번주를 줄 것..</p>
15 직업	진○○ : 문항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서 변경 3-2-1 순으로
16 교육 육구	<p>김○○ : ‘수준’ → ‘학력’ 으로 수정</p> <p>이○○ : ③전문대(2-3년제)줄</p>
종합의견	<p>이○○: 13 - (4) 학교징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내의 봉사 - 수업시간 이외 1일 2시간 이내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의뢰하여 1일 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 가급적 학부모와 동반, 특별교육 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교육감이 계약한 특별교육 기관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로 바꿨는데 설문지에 혼계, 근신, 학교 내의 봉사 등의 징계라는 구분에 혼계와 근신에 대한 용어를 학생들이 모름</p> <p>김○○ : 12-5 (‘학칙’ 을 ‘교칙’ 으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p> <p>곽○○ : 학교생활의 가장 큰 부분은 교우관계라 생각되는데, 교우관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함이 좋을 듯함</p> <p>김○○: 15번 항목과 관련하여 장래 희망과 관련된 직업군을 묻는 문항 추가 요망</p> <p>김○○ : 학교생활 만족도와 성적 및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이 적정하고 효율학교 생활의—만족감이나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폭력이나 교우관계등에 대하여서도 파악할 필요가—있다고 생각됨/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받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p>
V. 자율적 행동 (거시적 안목)	
42 사회변화	
43 인구변화	<p>김○○ : ‘일련’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름. ‘여러가지’, ‘여러분야로 변경요망</p> <p>진○○ :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문항으로 보임. 논리성 테스트 문제로 보임</p>
44 이득과 손해(3)	<p>이○○ : 이득 → 이익</p> <p>황○○ : ‘추세’라는 단어를 좀 더 쉬운 단어로 변경</p>
30 이슈표	이○○ : 이슈를 쟁점 으로 단어 교체 요함

현	이○○ : 답지 번호가 이상합니다. 44번에서 바로 46번으로
31 자원봉사	
종합의견	김○○ : 42-45번 내용 중 사회변화와 인구변화는 학업 지식이 낮은 학생은 답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득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학생도 여러명 있었음. 김○○ : 내용이 적절하여 의도된 내용의 파악에 효율적이라 봅니다
항목 및 번호 () 하위 문항 수	
VI 자율적 행동	
42 사회변화	
43 인구변화	
44 이득과 손해(3)	
45 (항목별 표시)	이○○ : V.42~44-3까지 문항이 있고 45번이 없음(왼쪽 아래 표기 1~14까지 문항 없음) VI.46번 부터 50번까지 만 문항이 있음 이○○ : 문제46번의 답을 했습니다. dh-green : 45번 문제 없음
1	곽○○ : 중학생의 입장에서선 우리사회의 관습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응답이 힘들 것 같음
2	
3	
4	곽○○ :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5	
6	
7	
8	곽○○ :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환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함
9	곽○○ :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족하다로 수정 김○○ : <u>있다</u> → <u>안다</u> 로 수정
10	

11	
12	이○○ : 살펴본다 → 예상해 본다.
13	
14	
46 (항목별 표시)	이○○ : 질문지 47번 답을 했습니다. dh-green : 답지의 순서변경(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1	이○○ : 규범 → 규칙
2	
3	곽○○ :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생각해본다 이○○ : 예측 → 예상해 본다.
4	
5	이○○ : 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행동한다.
6	이○○ : 나는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여 현재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47 (항목별 표시)	이○○ : 질문지 48번 답을 했습니다.
1	dh-green : '범위' 삭제
2	
3	
4	
5	dh-green : 결과 → 행동의 결과
6	
종합의견	<p>이○○ : 중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이 45분간 인데 문항의 수가 50문항으로 문항당 9초 ~ 10초 정도에 답해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서 실시할 경우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6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시험적으로 상위권의 학생 2 ~ 3명 정도에게 16쪽의 50문항의 설문지를 시험 실시 해 보니까 평균 55분 정도가 소요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p> <p>김○○ : 학생 설문지 50번 문항의 보기 14번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 '생각나는대로 즉시 행동하기 보다' 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대상이므로 어휘력이 풍부하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설문을 잘 이해하고 설문에 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어려운 낱말들을 이해하지 못해 적당히 답을 하기가 쉬우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쉬운 용어도 쉽게 풀어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간 수준의 학생을 표준으로 삼아 설문지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김용우 : 전반적인 청소년 생활역량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충분한 자료제시를 통해 결과를 알아보겠다는 뜻은 알겠으나, 학생들은 질문량이 많고 (10~15문항 정도가 적당) 늘어진다면 대중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소 문제수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문45)가 문제지에 빠져 있어서, 문46)를 문45)로 한문항씩 앞당겨서 의견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p> <p>이상수 : 질문지 49 번 50번은 답란이 없어서 종합합니다.</p> <p>49번 문항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p> <p>50번 문항</p> <p>9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p> <p>전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답변하기에 문항이 많고 조금 딱딱합니다.</p> <p>dh-green : 반 학생들 대상(35명)으로 예비조사 결과 어려운 용어와 부적절한 용어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조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p> <p>김○○ : 전반적으로 질문 문항에 대한 설문시 조사자의 설명이 필요할 듯 싶다. 특히 46 과 47 은 더욱 그렇다./ 48번은 문제가 없을 듯..</p> <p>박○○ : 중2의 인내력과 집중력으로 볼 때 이처럼 비슷한 형태의 문장이 지루하게 나열되는 설문은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됨... 어찌나.. 물어보고 싶은 건 많고...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주로 만나는 중2학생이라면 이쯤에서는 대충 체크하거나 아예 답을 안 할 것이 100% 확실함.</p> <p>황○○ : 45~50번은 질문지에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질문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묻기 위해서 어느 영역에 필요한 것인지 를 제시해 주었다면 좀 더 좋은 자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1. 질문 내용이 많음. 2. 질문의 내용 중 일부는 생애 핵심 역량을 측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함. 3. 생각과 행동이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 4. VI번 문항들은 자세히 보면 유사한 질문이 한 두 문항씩 있는 것 같음.</p>
--	--

부록 5. 자율적 행동 측정도구(선별한 최종문항)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적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1) 노인인구의 변화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 2) 출산율의 변화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 3) 평균수명의 변화
길어지고 있다 ____ 짧아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 4) 학생수의 변화
늘어나고 있다 ____ 줄어들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 5) 결혼하는 연령의 변화
느려지고 있다 ____ 빨라지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 6)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증가하고 있다 ____ 감소하고 있다 ____ 모르겠다 ____

II. 다음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결과입니다.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표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 ? → 나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 _____ 1) 가정의 지출이 줄어든다
- _____ 2) 학생들이 줄어든다
- _____ 3)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 _____ 4) 아동인구가 줄어든다

3. 다음은 노래 음반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방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음반을 구매하는 방법	장점	단점
음반가게나 온라인 매장에서 정품을 구입한다	품질이 보장된다 문제가 있으면 보상 받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 원하는 노래만 구입하기 어렵다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 한다	비용이 절감 된다 빨리 구매할 수 있다	(1)

3-1) (1)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sqrt{\quad}$ 표 하세요.

- ① 음질이 나쁘거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
- ② 양심에 걸린다
- ③ 좋은 음악을 만드는 가수들이 줄어든다
- ④ 비용이 많이 든다
- ⑤ 언뜻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 ⑥ 음반 시장이 축소된다
- ⑦ 고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2) 아래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sqrt{\quad}$ 표 하세요.

음반을 사지 않고 불법다운로드를 한다 → ? → 좋은 노래가 줄어든다

- ① 음반 판매량이 줄어든다
- ② 파일 공유 업자가 늘어난다
- ③ 불법복제 방지 기술이 발전한다
- ④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커진다

3-3) A라는 사람이 가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때 A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sqrt{\quad}$ 표 하세요.

음반 불법다운로드를 한다 ➡ 음반시장이 축소된다 ➡ 음반업계 종사자들이

줄어든다 ➡ ?

- ___ ① 가수로 데뷔할 기회가 줄어든다
 ___ ② 가수로 데뷔할 기회가 늘어난다
 ___ ③ 음반구입비가 싸진다
 ___ ④ 음반구입비가 비싸진다

I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sqrt{\quad}$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한다					
2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3 나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한다					
4 나는 우리 사회의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5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다					
6 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					
7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문 항	매우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드물게				자주
8 나는 내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					
9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원치 않는 결과도 살펴본다					
10 나는 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한다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III.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					
3 나는 목표를 수립하기 전에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4 나는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한다					
5 나는 계획한 일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날짜 혹은 시간을 미리 결정한다					
6 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7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8 나는 해야 할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9 나는 무슨 일이든 내 일을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끝낸다					
10 나는 계획한 일이 잘 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11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원하던 목표수준과 비교한다					
12 나는 목표달성 후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한다					
13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5 나는 나의 관심이나 흥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6 나는 부족한 자원을 활용할 때 희생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7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먼저 이해한다					
8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9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10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해결책을 찾을 때 가능한 많은 접근방법을 생각한다					
12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13 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찾아본다					
14 나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5 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자율적 행동 (종속변수)

문 항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친구들로부터 생각 좀 하며 살라는 소리를 듣는다					
2 친구들로부터 재치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3 선생님으로부터 계획성이 없다는 야단을 맞는다					
4 선생님으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5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직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					
6 부모님으로부터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북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강태중·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김지연·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김영지·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김경준·김영지·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김경준·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니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5-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크리홍보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64-2

ISBN 978-89-7816-760-4(셋트)